

# 성도의 벗 5

1987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성도의 빛

1987년 5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엔사인, 뉴 이라 및 프랜드의 기사를 다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링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 매리온 지 롬니,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런.

고문 : 휴 더블류 피녹크, 존 에이치 그로버그, 제임스 엠 패러모어, 데릭 에이 커스버트.

통 권 : 제253권, 제23권, 제5호  
 등 록 :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 1987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연 제 환

발행소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 구좌 : 010041-31-514091

인쇄인 : 삼화 인쇄 주식회사 유 성 근  
 International Magazine PBMA0673KO  
 PRINTED IN KOREA 5/87

© 1987년 제단 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관련 소유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성도의 빛은 중국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핀란드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어, 한국어, 노르웨이어, 포르투갈어, 사모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및 통가어로는 월간으로 인도네시아어, 타히티어 및 타이어로는 격월간으로 그리고 아이슬란드어로는 계간으로 발행됩니다.

성도의 빛의 1년 정기 구독료는 3,500원입니다.

일반호의 1권 구독료는 400원이며, 1년에 두 차례 발행되는 특집의 1권 구독료는 800원입니다.

정기 구독자는 특집 구독료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빛의 해외 구독료는 항공편 10,000원(미화 12불), 선박편 7,000원(미화 8불)입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2 대관장단 메시지 :  
 자신의 골리앗에 맞섬  
 토마스 에스 몬슨

7 방문 교육 메시지 :  
 가사

8 줄리 제이콥스 : 그녀의 등불이  
 화란에서 비침  
 루스 해리스 스웨이너

10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위대한  
 선생의 제자  
 단 엘 서얼

16 질의 응답  
 칼프레드 브로르티

18 남아프리카 공화국 성도들  
 마조리 이 우즈

24 성찬 기도에 대한 깊은 사색  
 존 에스 태너

29 애비 루스  
 테브라 허킨스 베어드

## 청소년란

33 우리로 돌아오라  
 하트만 렉터 이세

36 너는 우리의 기도 안에  
 키어스튼 크리스틴슨

38 7억 5천만 중에 한 사람 :  
 인도의 말일성도 청소년  
 베티 헤일

41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어린이, 소년, 어른  
 브르스 알 맥쿱키 장로

45 창의성과 말일성도  
 크로포드 게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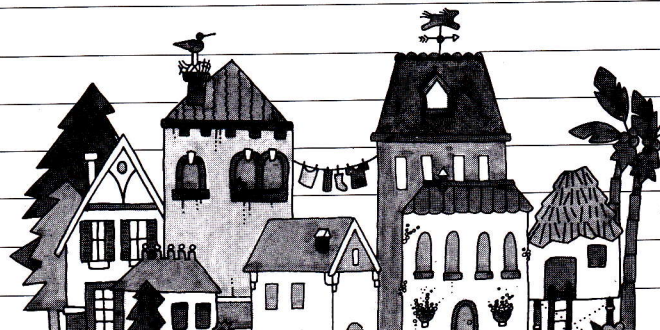
## 성도의 빛 어린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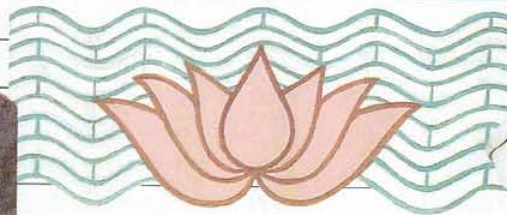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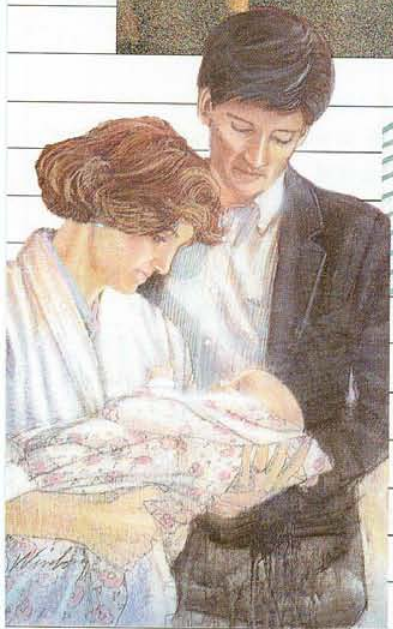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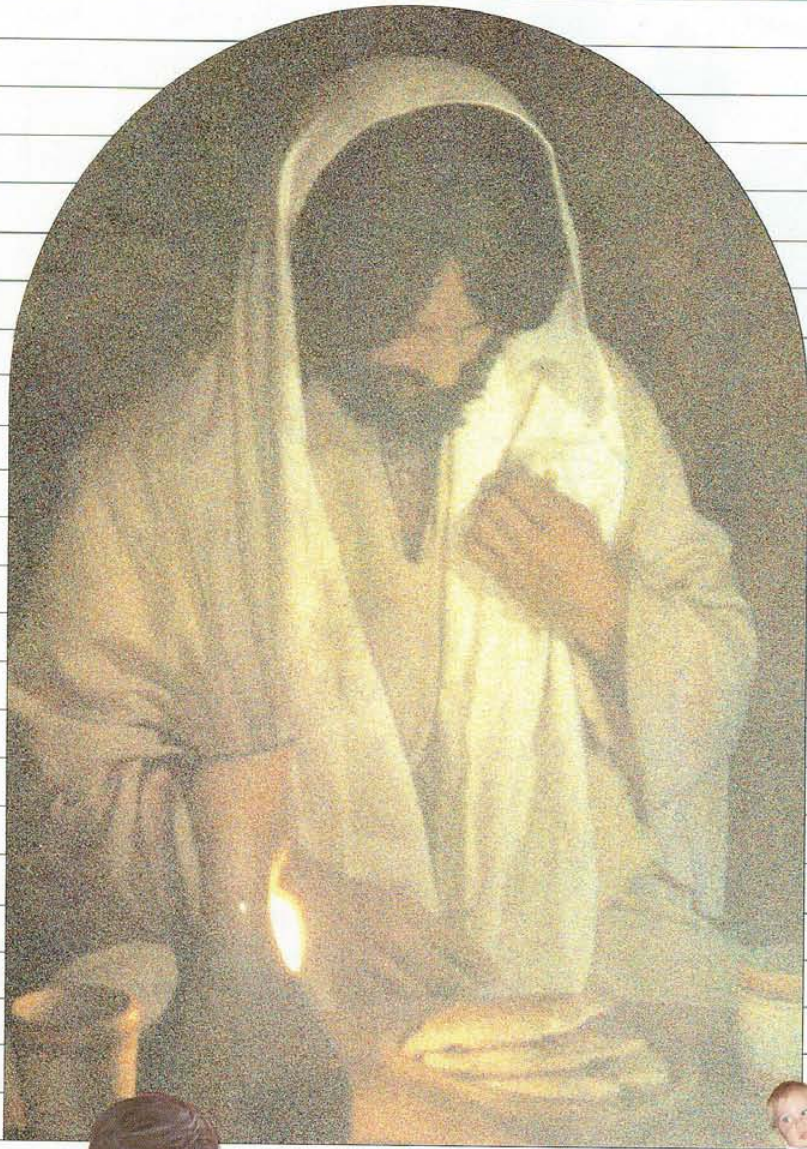
2 순교자, 스테반

4 사라페  
 그레그 라슨

7 경전찾기  
 점선 잇기 :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8 심심풀이 : 숨은 그림 찾기  
 마이크 리서  
 지역 소식







대관장단 메시지

# 자신의 골리앗에 맞섬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이보좌

**성** 지라고 알려진 곳에서 여러 세기 동안에 벌어진 수많은 전쟁 가운데 주전 1063년에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전쟁보다 더 잘 알려진 전쟁은 없습니다. (삼상 17:2) 산을 따라서 한쪽에는 블레셋의 무서운 군대가 모여서 유다의 심장부와 요르단 계곡으로 곧 바로 진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계곡의 반대 편에는 사울왕이 그의 군대를 모아서 맞서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들 말에 의하면 이렇게 맞서 있던 군대는 숫자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블레셋인은 철로 강력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소중한 기술을 비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대장간에서 쇠를 버리는 해머 소리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연기의 모양은 사울의 병사들의 가슴 속에 공포심을 불러넣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갓 들어온 신병이라도 구리로 만든 무기보다 철로 만든 무기가 우세하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군대가 마주치면 흔히 그렇듯이 대표자 격의 투사가 앞으로 나와서 적진의 대표자에게 앞으로 나와서 일대일의 대결을 벌이자고 도전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싸움의 예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일 대결에 의하여 전투의 승부가 결정될 때가 여러 번 있었으며 삼손이 사사로 있었던 시기에 특히 더 그랬습니다.

## 거인 중의 거인

그러나 이때에는 적어도 이스라엘 측으로서는 상황이

거꾸로 되어 있었으며 다른 모든 사람에게 도전하고 있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으로서 그는 가드 사람인 골리앗이라고 하는 굉장한 거인이었습니다. 옛 기록에서는 골리앗의 키가 삼 미터나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놋투구를 쓰고 몸에는 어린갑을 입고 있었습니다. (5절) 그의 창이 자루가 너무나 무거워서 굉장히 힘센 사람도 그것을 들면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그의 방패는 그때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큰 것이었으며 그의 칼은 무시무시했습니다.

블레셋 진영에서 나온 이 투사(4절 참조)가 우뚝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오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심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삼상 17:8)

그의 말은 만일 자기가 이스라엘 전사에게 진다면 블레셋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인의 종이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만일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인이 블레셋인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를 더불어 싸우게 하라”(10절)

그는 사십 일 동안 똑같은 말로 소리쳤으나 이스라엘인은 무서워서 떨기만 하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습니다. (24절)

## “주의 종이 가사”

그러나 두려워 떨거나 놀라서 도망가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스라엘 군인을 신랄하게 꾸짖는 질문을 하여 그들이 허리를 똑바로 펴게 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사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29, 32절) 목동인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목동으로서 말한 것은 아니었으니 그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름 부어 주었으니 주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한 까닭입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33절) 그러나 다윗은 끈질겼습니다. 그는 사울의 갑옷을 입고 그 거인과 맞설 준비를 하였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어서 동작이 둔해지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벗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는 자신의 양치는 지팡이를 들고 근처의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걸어가셨습니다. (40절 참조)

우리는 모두 골리앗이 깜짝 놀라서 고통지른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내게로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43~44절)

##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자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은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향오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45~50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으며 그의 전도는 양양하였습니다.

우리 중에는 다윗을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지명을 받은 목동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를 힘센 투사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수많은 전투에서 이긴 다음 그를 숭배하는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삼상 18:7)라고 노래한 것이 기록에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그를 천부의 재능을 타고난 시인으로서 또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임금 가운데 한 사람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게 만들었습니다. (삼하 11장 참조) 나는 다윗을 다른 사람들이 모두 주저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열세의 상황을 극복하고 그의 생애에 나타난 거인인 가드의 골리앗에 맞섬으로써 이스라엘의 이름을 구할 용기와 신앙이 있었던 의로운 소년으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 우리는 골리앗에 맞서고 있습니까?

우리도 자기 자신의 생활을 주의길게 살펴보고 자신의 용기와 신앙을 판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나의 생활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바라는 행복 사이에 골리앗이 서서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골리앗은 칼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히 모욕하여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는 키가 삼 미터나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골리앗도 옛날의 골리앗 못지 않게 엄청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그가 침묵 속에서 도전하는 것은 수치스럽고 당혹스러운 것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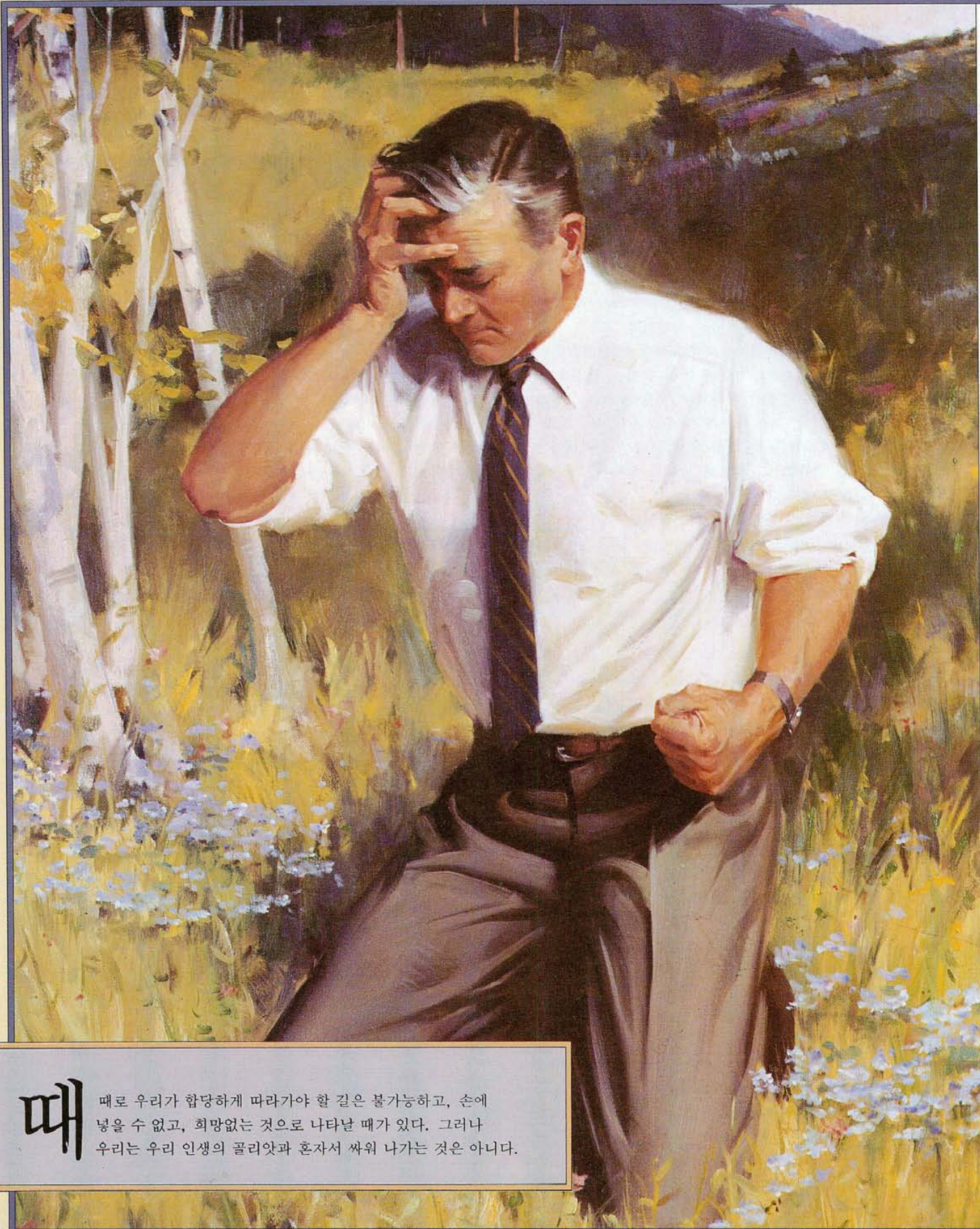
어떤 사람에게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는 못건디는 것이 골리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과 억눌린 사람들을 걷어차도록 만드는 방자한 말씨와 이기심이 골리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심, 욕심, 두려움, 게으름, 의심, 악덕, 교만, 탐욕, 이기심, 낙담 등은 모두 우리 생활에서 골리앗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거인은 여러분의 헛된 소망, 기원 또는 저절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기다린다고 해서 그 크기나 힘 또는 세력이 약화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꼭 쥐고 있는 굴레를 강화시킴으로써 권세가 더 커집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전투는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윗이 싸운 전쟁보다 조금도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적은 골리앗보다 만만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도 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구약의 다윗처럼 “우리의 명분은 정당합니다.” 우리는 실족하기 위하여 혹은 유혹의 덫에 걸리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오히려 성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거인, 우리의 골리앗을 정복해야 합니다.

## 다섯 개의 매끈한 돌을 고름

다윗이 시냇가로 가서 다섯 개의 매끈한 돌을 주의길게



때

때로 우리가 함당하게 따라가야 할 길은 불가능하고, 손에  
넣을 수 없고, 희망없는 것으로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골리앗과 혼자서 싸워 나가는 것은 아니다.

고른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신 주님에게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회를 막음으로써 여러분의 행복을 박탈하고 있는 골리앗을 격퇴하기 위하여 어떤 다듬어진 돌을 고르시겠습니까? 몇 가지 제언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승리에 있어서 **용기의 돌**이 꼭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도전받고 있는 것을 조사해 보면 편리하고 쉬운 것이 올바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적절하게 따라가야 할 길은 때로는 불가능하고 도달하지 못하고 절망적인 것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레이먼과 레뮤엘에게도 그들의 길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레이먼의 집에 가서 기록을 얻어 오라는 임무를 생각하고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어렵다고 말하면서 불평했습니다. (니일 3:5 참조) 그리하여 그들은 용기가 부족하여 기회를 박탈당하였고 용기있는 니파이에게 그 기회가 돌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습니다.” (니일 3:7) 용기의 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나는 **노력의 돌** - 정신적인 노력과 육체적인 노력의 돌을 택합니다.

결점을 극복하거나 약함을 바로잡으려는 결정이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단계입니다. “힘을 다하여 낮절하”(교성 4:4 참조)라는 말씀은 선교 사업에 관해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겸손의 돌**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겸손할 때 우리의 하나님인 주님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성 112:10 참조)

또 누가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어떤 권세를 인정하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고 들어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기도의 돌**을 갖추지 않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의무에 대한 사랑**이라는 돌을 선택합니다. 의무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해야 할 때 하는 것입니다.

### 신앙의 물매

이 다섯 개의 잘 다듬어진 돌을 고르고 신앙의 강력한 물매로 무장을 갖추고 나면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줄 미덕의 지팡이만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거인 골리앗을 만나게 되든지 그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기의 돌이 두려움이라는 골리앗을 녹여 버릴 것입니다. 노력의 돌이 우유부단과 미루는 골리앗을 없애 버릴

**의** 무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을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할 때는 싫든 좋든, 해야 하는 것이다. 성장하게 되는 뜻깊은 기회는 가장 어렵고 힘든 때에도 발견하게 된다.



제프리 와이치 크레이튼 그림

것입니다. 교만과 시기와 자존심의 결여라는 폴리앗은 겸손과  
기도와 의무라는 돌의 권세 앞에서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애의 폴리앗과 싸우려고  
혼자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것처럼 우리도 그 지식을 다시 외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이스라엘을]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7)

그러나 전투를 해야 합니다. 승리는 무시한다고 얻어질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진 우리 생애의 상세한 내용은 결코 못 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의 길이 갈라지고 굽어질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목적에 집중하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여행의 종착점에 도달할 것을 희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의미있는 기회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찾게 될 것입니다.

###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카테지 감옥에서 분노한 폭도의 손에  
의하여 죽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깊고  
위대한 신앙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폴리앗을 평온하게  
맞아하였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를 아침처럼 고요하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나 모든 사람에 대하여 털끝만치도 부끄러울  
것이 없도다.”(회복된 교회, 182페이지)

셋째마네 동산과 골고다에서 육신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격심한 고통과 괴로움이 주 예수님과 무덤을 이기는  
승리 사이에 서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에 가득 차서  
이렇게 우리를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려 가노니...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

이 기사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전합니까? 감옥이  
없었으면 요셉도 없었을 것입니다. 폭도가 없었으면 순교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폴리앗이 나타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지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대항하여 싸우려 나갈 때 “심히 두려워하”거나  
“도망”할 필요가 없습니다.(삼상 17:24 참조) 오히려 우리는  
다윗이 시편에서 찬양한 그분으로부터 확신을 받고 거룩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이다...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시편 23:1, 4)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강조 사항. 여러분의 가정 복음 교육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1. 다윗과 그가 폴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용기와 신앙을 행사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 폴리앗이 생활 속에 들어와 자신과 행복 사이에 서서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폴리앗은 지혜의  
말씀, 길들이지 못한 혀, 이기심, 시기심, 욕심, 두려움,  
게으름, 의심, 악덕, 교만, 탐욕과 관련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3. 우리는 용기, 노력, 겸손, 기도, 충실함을 우리 의무에  
적용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폴리앗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4.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폴리앗과 싸울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에게 확신과 거룩한 도움이 올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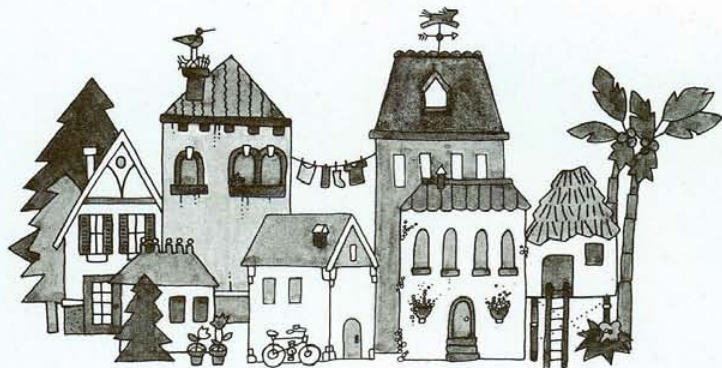
#### 토론시 유의 사항

1. 개인적인 시련과 어려움을 이기는 것에 관한 자신의  
느낌을 전한다.
2. 이 기사 내용 중에서 가족이 함께 소리내어 토론할  
성구나 인용문이 있는가?
3. 이 토론은 방문 전에 가장과 함께 이야기하면 더 훌륭한  
토론이 될 수 있을까? 정원희 지도자나 감독으로부터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가?



## 방문 교육 메시지

# 가사



목적 : 결혼 여부나 자녀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든 자매는 주부라는 것을 강조함.

**남**편의 직장 때문에 자주 이사해야 하는 어떤 여성이 뜰에 꽃의 뿌리를 심고 있었다. 이웃 사람이 밭길을 멈추고 그녀를 지켜 본 후 이렇게 물었다. “내년 봄에 그 꽃이 필 때는 이곳에 제시지 않게 될 것을 알면서 왜 귀찮게 그 꽃을 심고 있습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이곳에 없을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이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저의 집이 일시적인 거처밖에 안되지만 제가 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두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시골집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오두막에 살든지, 대저택에 살든지 또 결혼 여부나 자녀의 유무를 막론하고 모두 주부이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지상의 가정을 우리가 극히 최근에 떠났으며 또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하늘에 있는 가정처럼 만드는

것이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국은 장소요 또한 하나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가정이고 가족입니다. 그것은 이해와 친절입니다. 그것은 상호 의존과 사심없는 행동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건전한 생활이며, 개인적인 희생이요,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건전하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기적을 낳는 신앙[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출판사, 1979년], 265페이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위대한 일은 영원히 지속될 행복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이 존속되는 가정을 이룩하라는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10월호, 49페이지)

가정은 시멘트, 벽돌, 나무, 진흙, 짚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이곳은 하늘에 속한 것으로 기초를 만들어 세운 장소이다. 바로 이 때문에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적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시편 127 : 1)

우리가 그런 가정을 짓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교리와 성약 88편에서 성전 건립에 관하여 주신 훈계는 틀림없이 확대해서 우리 가정에도 적용할 수 있다. “너희와 너희 주변을 정리하라. 모든 요긴한 것을 준비하라. 집 곧 기도의 집, 금식의 집, 신앙의 집, 학문의 집,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119절)□

## 방문 교사를 위한 제언

1. 여러분이 자신의 지상의 가정을 하늘에 있는 우리 집과 좀더 같게 만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교리와 성약 88편 119절에 있는 권고를 자기 자신의 가사 업무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을 좀더 “영광의 집, 질서의 집, 하나님의 집”으로 잘 만들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줄리 제이콥스

루스 해리스 스웨이너



그녀의 등불이 화란에서 비침

어느 날 어떤 젊은이가 밝게 빛나는 등불을 들고 영국 런던의 안개낀 길을 걷고 있었다. 어떤 노인이 그에게 다가와서 “내가 묵고 있는 호텔까지 안내해 줄 수 있다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 젊은이는 등불을 높이 들어올리고 그 노인을 그 장소로 안내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젊은이는 수고비를 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 그 노인 이외에도 길을 잃었던 두 사람이 그 안개 속에서 그 빛을 따라왔던 것이다.

줄리 제이콥스 자매는 화란에서 출판되는 성도의 벗인 the STER에 나온 그녀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발산하는 빛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그럴 때가 흔히 있습니다.”

제이콥스 자매는 만면에 미소를 띄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행복한 회원이 되었습니다.” 화란의 리지스위크에 사는 이 72세의 할머니는 역경을 이겨 왔으며 이십사 년 전에 개종한 이래로 주님을 섬겨 왔다.

줄리는 1914년 인도네시아의 세머랭에서 여섯 자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녀가 여덟 살 되었을 때 부친이 돌아가셨으며 화란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난 중국인인 그녀의 어머니는 자녀를 돌볼 수가 없었다. 줄리는 가족이 다시 함께 살게 될 때까지 여러 해 동안 입양 가정에서 살았다.

줄리는 교육학 학위를 받고 학교를 마친 후 루돌프 제이콥스를 만나 1938년에 결혼할 때까지 비서로 일했다. 이차 대전이 시작되었을 때 노련한 조종사인 루돌프도 징집되었으며 곧 일본군의 전쟁 포로가 되었다.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던 줄리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돌보아야 했다. 그녀는 그때부터 삼 년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고생하면서 편물과 기타 수공예품을 팔고 식량을 얻기 위하여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바꾸었다.

루돌프는 몹시 병약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로 전쟁 포로 수용소로부터 돌아왔다. 가족은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화란으로 이사하기로 했다. 그래서 줄리는 1947년에 인도네시아를 떠났으며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두 번 다시 돌아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몰랐다.

육 년 후 루돌프 제이콥스는 비행기 추락 사고로 죽었으며 줄리는 다시 혼자서 자기 가족—다섯 살부터 열네 살까지의 네 자녀—을 돌보게 되었다. 그녀는 타자와 속기를 가르치는 일을 했다. 1960년에 줄리는 장남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또 큰 타격을 받았다.

줄리는 아들을 잃은 슬픔에 흔들리면서 신앙의 위기를 맞았다. “내 육신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늘 하듯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무릎꿇고 기도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줄리는 그때까지 교회에 다녀 본 적은 없었지만 자신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갖고 있었다. “얼마 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드리면서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찾아 다녔습니다.” 1962년 어느 비오는 날 밤에 두 명의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제이콥스의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줄리의 아들 한 사람이 침례받았고 곧 그녀의 누이와 어머니도 침례받았다. 그러나 줄리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녀의 딸이 침례받기 전날 밤 선교사가 그녀에게 이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써 기도하도록 권고했다.

줄리는 이렇게 회상한다. “나는 그 선교사에게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날 밤 기도하면서 교회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한밤중에 나는 이 교회가 정말로 내가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교회인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여쭙어 보아야 할 절박한 필요성을 느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진실하게 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드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힘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가 끝났을 때 침실 창문의 커튼을 통하여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창밖을 내다 보면서 나는 내 아들이 죽기 전에도 몰랐던 행복과 화평을 느꼈습니다.”라고 회상하는 그녀의 얼굴에는 사반 세기 전 아침의 그 경이로운 느낌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녀는 바로 그날 딸과 함께 침례받았다.

제이콥스 자매는 그 후로 이십일 년 동안 상호부조회에서 봉사했다. 그녀는 오 년 동안 화란 헤이그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을 지냈다. “그 일은 항상 쉽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나에게 필요한 도움과 영감을 받기 위하여 자주 무릎꿇고 기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일 년에 세번씩 런던 성전에서는 화란 회원을 위하여 특별 주간을 지정한다. 제이콥스 자매는 이렇게 설명한다. “우리는 보통 밤에 출발해서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밤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가서 세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갑니다. 우리는 그곳에 갈 때마다 새벽 6시 이전에 성전에 도착하며 저녁 6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화란으로 돌아오면 피로하지만 주님의 집에서 봉사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합니다.”

제이콥스 자매는 “인생이 항상 쉽지만 하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보상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우리를 그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생각하면 내 인생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을 받아들일 용기를 얻게 됩니다.”□

# 보이드 케이

위대한

단 엘 서얼

**보**이드 케네스 패커는 1924년 9월 10일 유타주 브리감시티에서 다섯번째 아들이자 열번째 자녀로 태어났다. 그가 열두 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패커 자동차 회사 건물 안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했다. 기술이 좋고 근면한 기계공인 그의 부친은 그후 그 업체가 자동차 회사가 된 자동차 수리업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당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패커 장로는 짧은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다. “나는 자랄 때 가끔 우리가 가난하다는 생각을 했다. 나중에 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단지 돈이 없었을 따름이다. 우리는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있어서는 항상 부자였다.”

어린 보이드 패커가 풍부하게 누렸던 것 중에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었다. 그는 특히 새를 사랑했다. 그 사랑은 아식까지도 그의 생활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패커 장로 집 정문 맞은 편에는 공작으로부터 황금색 꿩,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살아 있는 새를 키우고 있는 새장이 있다. 그 집 내부에는 천연색으로 칠한 새를 잘 새겨 놓은 조각품이 전시되어 있다. 이런 조각품은 피조물에 대한 심미안뿐 아니라 창조주의 예술적인 능력에 대한 경외심을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 조각품을 하나 만들려면 패커 장로는 그가 낼 수 있는 조금밖에 없는 여가를 이용하여 일 년 정도 작업을 해야 한다. 패커 장로는 또 그림과 조각을 좋아한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이런 활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다. 언제나 아버지가 되는 일이 그에게는 제일 중요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영원한 목표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것 같다.

## 소년으로부터 어른으로

패커 장로는 이차 대전이 시작될 무렵에 청년기를 맞이했다. 그는 고등 학교를 졸업한 다음 한 동안 그의 고향에 있는 육군 병원 건축 일에 종사했다. 그는 당시의 수많은 말일성도 청년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때문에 복음 선교사로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는 1970년부터 십이사도 장원의 회원으로 봉사했다.



# 패커 장로

## 영의 제자

봉사할 수 없었다. 그는 1943년 봄에 공군에 입대했으며 그 다음 해 그의 스무번째 생일 며칠 전에 조종사로서 졸업했다. 그는 태평양 기지로 발령받았으며 전쟁이 끝난 후 거의 일 년 동안 일본에 주둔했다.

그는 군에 있는 동안 경전을 연구할 충분한 시간을 얻었다. 그는 물론경을 여러 번 읽었다. 오늘날 그는 물론경을 “나의 생애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준 책”이라고 말한다. 그는 물론경의 영으로 일본인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려는 동기를 받게 되었다. 군인들로부터 복음에 관하여 배운 사람 가운데 다쓰이 사토와 그의 부인 지오가 있었다. 그들이 침례받을 때가 되었을 때 보이드 패커가 사토 사매의 의식을 행할 특권을 받게 되었다. 지금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의사로 있는 씨 엘리엇 리차즈가

사토 형제를 침례주었다. 나중에 사토 형제의 반역으로 인하여 수많은 일본인이 경전과 성전 의식을 그들의 모국어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영원한 동반자

보이드 케이 패커는 1946년에 집으로 돌아왔으며 옥든 근처의 웨버 대학(현재 웨버 주립 대학)에 입학했다. 그는 그곳에서 역시 브리감시티로부터 온 도나 에디스 스미스를 만난다. 그들은 1947년 7월 27일에 로간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열 자녀의 부모가 되었다. 앨런, 케네스, 데이비드, 로렌,

보이드 케이 패커는 그 시대의 많은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이차 대전 기간에 군 복무를 했다. 그는 전쟁이 끝난 후에 거의 일 년 동안 일본에서 근무했다.

패커 장로는 자신의 성공의 많은 부분을 아내의 공으로 돌리는 데 그것은 반려자로서 그녀가 지닌 힘 때문이다.

러셀, 스펜서, 게일, 캐슬린, 로렌스, 엘던.

패커 형제의 목표는 교사가 되는 것이었으며 그 꿈을 추구했다. 그는 1948년에 웨버 초급 대학에서 준학위를 받고 1949년에 로간 소재의 유타 대학으로부터 학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그는 1953년에 유타 대학으로부터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62년에는 브리감영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시기는 바쁜 시기였다. 그는 교회의 지역 단위 조직에서 부름-교사, 스테이크 보조 서기, 고등 평의원-을 받는 것 이외에도 1949년에 세미나리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가 건축 공사에 참여했던 브리감시티에 있는 낡은 육군 병원이 인디언 학생을 위한 연방 정부 학교가 되었으며 그는 1949년부터 1955년 중반까지 교회 교육 기구를 위하여 그 학교와 관련해서 인디언 문제 책임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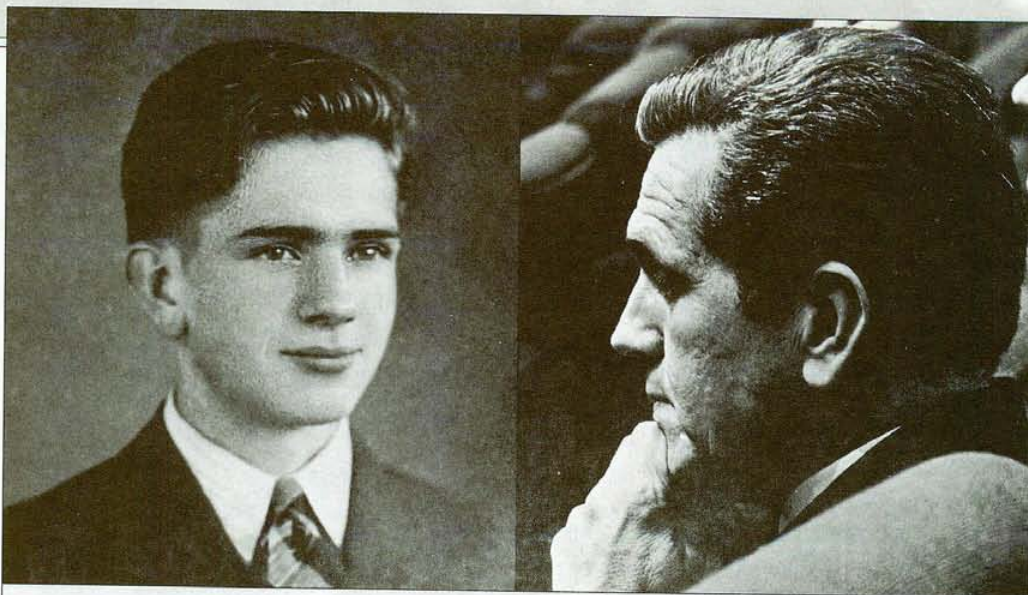


패커 장로는 조금밖에 없는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정교하게 새의 조각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 일 년 동안 작업하곤 했다.





보이드 케이 패커와 도나 패커 부부가 1950년대 초에 열 명의 자녀 가운데 첫 세 자녀-케네스, 좌;  
앨런, 장남; 데이빗-와 함께 가족 사진을 찍기 위하여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왼쪽) 십육 세의 보이드 케이 패커는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북쪽으로 단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브리감시티에서 자라났다. (오른쪽) 십이사도 정원으로 지지받았던 연차 대회에서의 패커 장로.

봉사했다. 또 이 기간에 브리감시티에서 시 의원으로 4년간 봉사했다.

## 더 큰 책임

보이드 케이 패커는 1955년에 교회 교육 기구의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및 대학부의 책임자 보조로 지명받았다. 그는 1961년 10월에 십이사도 보조로 부름받을 때까지 그 직책에서 봉사했다.

그는 결혼 초기의 그 시기에 가족이 늘어나고 책임이 커지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느라고 늘 시간이 팍 차 있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었을까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 모든 것은 단 한 마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는 완벽합니다.”

패커 자매는 그 설명에 대하여 미소지으며 이렇게 설명한다. “남편은 내가 향상하려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도나 패커가 숨겨 좋은 주부이고 훌륭한 교회 역원이며 계보 조사자로서 상당히 많은 것을 달성한 여성인 것은 분명하다. 그녀는 활력에 넘치는 여성으로서 현재 패커 가문의 계보에 관한 책을 쓰고 있다.

패커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아내는 훌륭하고 강력한 동기 부여의 근원입니다.”

## 자녀의 필요 사항을 해결함

가족 문제에 관해 패커 장로 부부의 의견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다는 느낌이다. 패커 장로는 그들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발전했다고 말한다.

패커 자매도 자녀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이 미리 충분한 여유를 두고 단합해서 공을 들여 계획을 짜고 그 자녀에게 적합한 교육 기회를 활용하여 재능을 개발하도록 서로 도왔으므로 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한다.

패커 부부의 결혼한 자녀 가운데 두 사람만 빼고는 모두 또 서른 일곱 명의 손자 가운데 서른 명의 손자가 모두 자동차로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안에 살고 있다. 자녀들은 자주 부모를 방문한다. (결혼한 자녀들은 패커 장로 부부의 권고에 따라 또 자기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에 자주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패커 자매는 그들 가족이 일 년에 한번씩 여름에 함께 모이는 행사 계획을 세우는 것을 주도하는 데 패커 자매는 패커 가문의 조상 가운데 한 분과 그 분의 직업이나 활동을 주제로 다루도록 제시한다.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 생활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들의 어머니 주변을 맴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이 교회 봉사를 위하여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자녀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고 부모 두 사람이 할 이야기를 모두 다 대신해서 이야기해야 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언제나 패커 장로의 도움이 어머니와 함께 또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자녀와 함께 집에 있게 될 때는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 노력해 왔으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패커 장로가 말한다. 그 말은 가능할 때는 언제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과 매일 조금씩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앨런 패커는 자기 부친이 가르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그 기회를 이용했다고 말한다. 패커 장로의 자녀는 지금도 그에게 조언을 구하려 간다.



몰몬경은 패커 장로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 최우선 순위

엘런은 이렇게 말한다. “그는 우리의 축복사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이며 그것이 그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로렐 패커 딜먼은 부친이 언제나 성령의 속삭임을 매우 잘 듣는 것같이 보인다고 말한다. 딜먼이 브리감 영 대학교에 다닐 때 “저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계속되는 그런 때에 늘 전화를 해주시던 기억이 납니다.” 한 마디의 훈계나 격려가 그녀로 하여금 그런 역경을 이기게 해주곤 했다.

케네스의 이야기는 이렇다. “저는 부친께서 제가 복음대로 생활하는지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생활하고 내 가족의 생활을 인도하며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합니다.”

몇 년 전에 패커 장로는 연차 대회에서 자신의 말씀인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표명하면서 공개적으로 그의 자녀와 손자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에 관하여 말씀했다.

“우리의 자녀나 세상 사람들의 자녀가 알아야 할 점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명성이나 평범 중에서 또는 부나 가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이러한 교훈을 이해할 때, 행복이 결코 물질적인 것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이 없이도 행복할 수 있고, 물질적인 것을 누리면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확실하지 않습니다. 자녀 여러분, 간증을 가지십시오. 시온을 건설하십시오. 그리하면 진정한 성공과 완전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성도의 벗, 1981년 4월호, 31, 33페이지)

패커 장로의 말씀의 주제는 광범위하다. 엘런은 그의 부친이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자신이 얻은 지식을 영적인 통찰과 혼합하여 그의 “숙제”를 잘 한다고 말한다. “그는 수업 시간 동안 그의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교회 일반 회원들의 눈에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공헌도 있다.

## 진실로 교사임

십이사도 평의회 제임스 이 파우스트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패커 장로는 진실로 교사입니다. 십이사도는 모두 다 교사이지만 그는 십이사도 내에서 교사입니다.”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선임 회원으로서 지시 사항을 제시하고 결정에 접근할 때 그것이 교회와 그 백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지니고 행한다고 파우스트 장로가 설명했다.

그는 또 덧붙여서 패커 장로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경전에 대한 사랑과 활용이 교회 전체의 방향에 영향을 주었다고 말한다.

십이사도 평의회 러셀 엠 넬슨 장로는 십이사도 정원회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을 때 패커 장로는 마음속으로 몰몬경에 있는 해당되는 가르침을 찾아서 그것을 토론에 적용할 때가 흔히 있다고 말한다.

몰몬경은 보이드 패커의 생애에 깊은 영향을 미쳐 왔다. 넬슨 장로는 이렇게 말한다. “몰몬경이 없다면 패커 장로는 현재의 그와 같은 예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선견자입니다.”

넬슨 장로는 또 덧붙여서 경전을 인용한 그의 가르침은 “깊은 이해”가 그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가르침에는 성령의 속삭임에 귀기울이는 것의 중요성, 생명과 구원의 계획, 선교 사업, 주님이 택하신 지도자를 지지함, 행복의 비결인 순종 등과 같은 몇 가지 주제가 자주 나오는 것 같다. 그러나 끊임없는 한 가지 주제가 있으니 그것은 주고 베푸는 것이 자신이 받고 있는 부름이요 특권이라는 확실한 간증이다.

그는 1917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중재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면서 인류의 구속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중추적인 역할을 살펴보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가 하신 일과 그가 누구이신가를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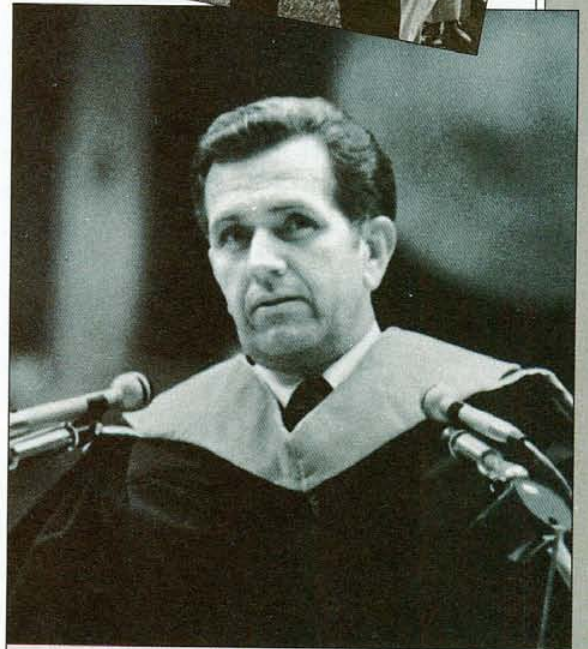
“참으로 보잘것없는 말씀이 되리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한 느낌은 말하지 않고도 영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불완전한 짐을 벗어 버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1976년 아이다호주에 있는 터톤 댐이 무너진 후에 패커 장로(왼쪽)는 스펜서 더블류 킴본 대관장(모자 쓴 분)과 함께 황폐된 지역을 방문했다.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의 순간 순간을 맞보게 됩니다.”  
(성도의 빛, 1977년 10월호, 5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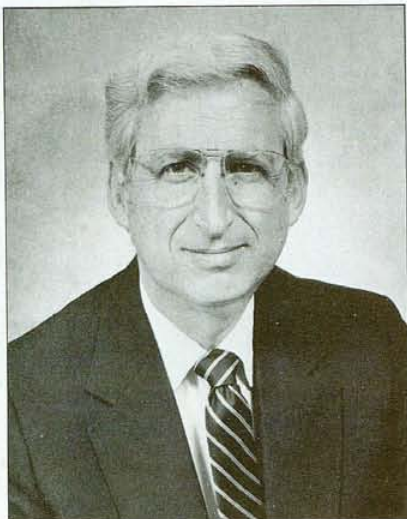


저명한 교육자인 패커 장로는 대학계에서 수많은 연설을 했다. 이것은 유타 대학에서 말씀한 것이다.

# 질 의 응 답

다음 대답은 공식적인 정책이나 교리가 아니고  
지침으로 소개되는 것임

우리는 성장하고  
발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처럼 되기  
위하여 이 지상에  
보내졌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  
학대당하고 잘못 양육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잘못된  
양육에 의하여 생긴  
문제를 극복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칼프레드 브로드릭,  
남 캘리포니아 대학  
사회학 교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위대한 선택의 은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돕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해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히도 주님께서  
모세에게 설명하신 대로 한 세대의  
부정이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출  
20:5 참조) 누구든지 오늘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족을 보면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가족은 그들의 고통과 어두운  
부분을 문자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  
자녀와 손자에게 넘겨 줄 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 세대의  
희생자가 다음 세대를 희생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한편 주님께서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쩔이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에스겔 18:2-4)

이 구절은 자녀가 자기 부모의 죄를  
반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세대가 자기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부름을 받고 봉사하면서 또 가족 문제

상담 전문가라는 직업을 통한 경험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파괴적인  
가문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런  
가족에게서 파괴적인 쇠사슬을 깨뜨릴  
용감한 영을 보내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자녀들은  
억울하게 폭력과 무관심과 착취의  
희생자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 가운데 일부는 자기  
내부의 독소를 “정화”시키고 그 독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 주는 것을 거부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들의 앞에는  
파괴적인 고통의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들 다음에는 깨끗하고 순수한 혈통이  
호르게 됩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자들은 그들을 축복받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은 겪지  
않을지도 모르는 것을 억울하게 당하는  
가운데 가문에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도움으로써 어느 정도 “시온 산의  
구세주”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굴욕으로 가득 찬 과거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아는 특권을 누리  
왔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부친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은 여성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까스로 용기를 내서  
어머니에게 말했을 때 오히려  
어머니로부터 분노에 찬 구타를 당하고  
버림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으로 인하여 그 여성은  
쓰라린 감정과 자신을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믿음직한 남편을 찾아서  
지금은 남편과 의로운 가족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배경을 지닌 다른 여성들이 각자 자기 자신의 가문에서 그런 독소를 제거하도록 도와 주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열두 살 때 어머니를 여윈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죽자 아들을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가 놓고 술을 마시면서 여자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이고 같이 즐겼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방으로부터 나오게 해줄 때는 심하게 때려서 정신을 잃게 하고 때로는 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뇌진탕을 일으키게 하기도 했습니다.

예상대로 그 청년은 혼돈과 자기 혐오와 악감정으로 가득 찬 상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그 상태로 버려 두시지 않으셨으며 그에게 친구들을 주셨고 또 성장할 기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은 영적인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훌륭한 여성과 성전 결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함께 자녀를 의와 온유함과 사랑 속에서 키우겠다는 굳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의 어느 시대에는 주님께서 불의한 세대를 멸하기 위하여 홍수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그가 이 시대에는 그런 세대를 순화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나중에 에스겔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을 일부 사용하셨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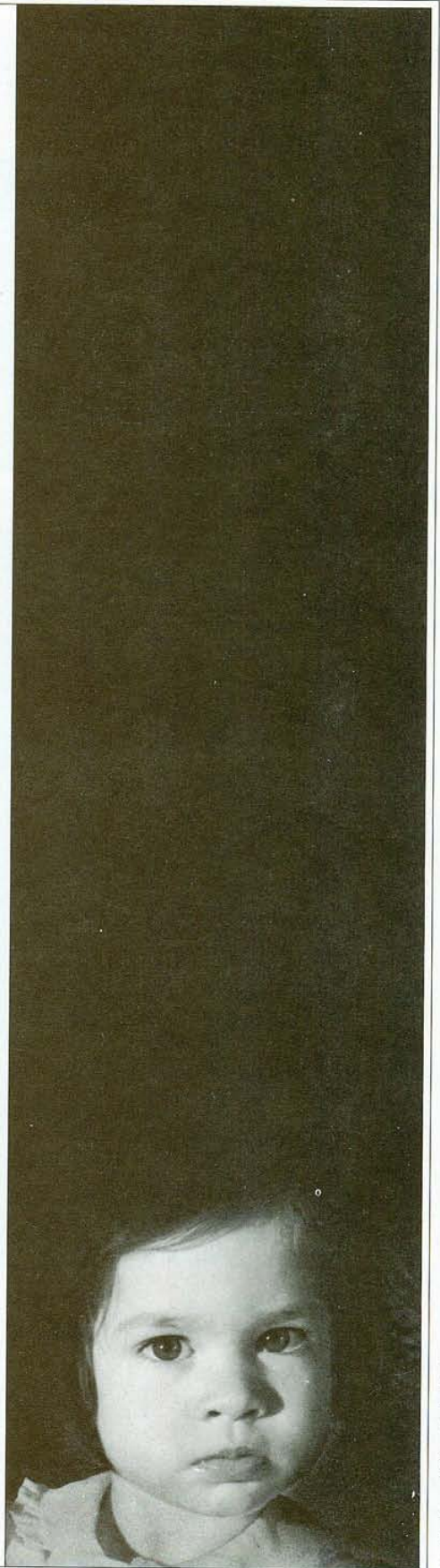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예레미야 31 : 29~30)

그 다음에 그분은 계속해서 이 새로운 성약의 세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임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예레미야 31 : 33)

나는 우리 대부분이 이런 용감하고 힘든 노력을 하고 있는 영들을 한 사람 혹은 그 이상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장 단계의 후기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초기 단계에서 무서운 상처로부터 너무나 큰 고통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내부에 있는 순수한 영을 인식하려면 쓰라린 고통을 겪은 것을 지나쳐 버릴 상당히 성숙한 영적 안목이 필요할때가 흔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어 주고 그들이 숭고한 인생을 실현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과 협조를 마련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동시에 특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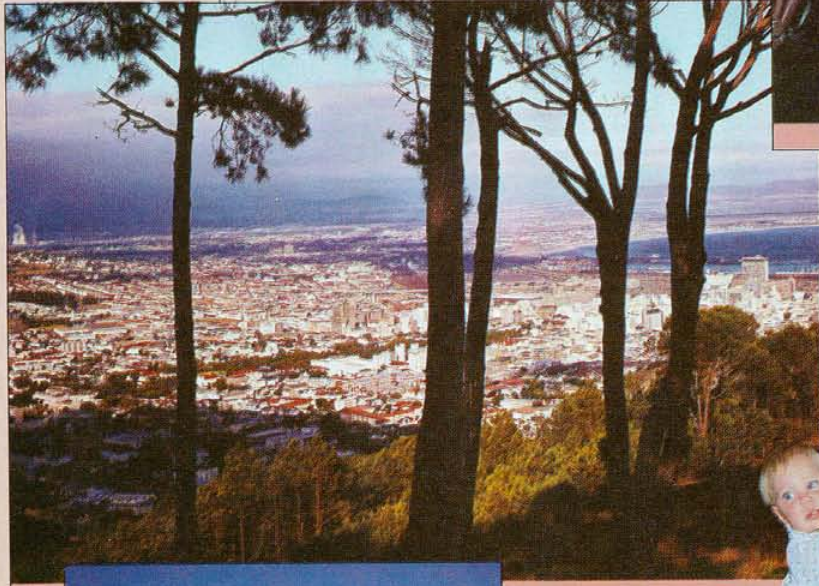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우리 자신이 그 어려운 빛의 사자일 수도 있습니다. 악감정을 버리고 우리 구세주의 발자취를 따르며 우리가 받은 거룩한 임무에 충실합시다. □

**고통 중에 있는 가족들은 그들의 아픔과 어두움을 그들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것 같다. 그러나 각 세대는 그들이 각자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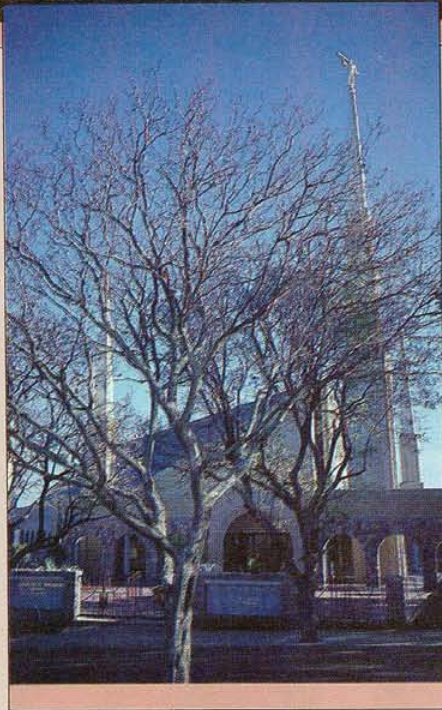
남아프리카 샌드톤 스테이크 회원들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케이프타운의 모습.

케이프타운 제일 와드 회원인 맬콤 배셋트와 폴린 배셋트 부부 및 그 자녀.

1976년에 조직된 요하네스버그 지부 게보 도서관에서 마이크로필름을 판독하는 도서 책임자 실비아 제이 밀네. 밀네 자매는 남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성명 초출 프로그램을 책임맡았다. 지금은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기록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



1985년에 헌납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



# 남아프리카 공화국



1984년에 시포 모제즈 코모가 영국의 런던에서 복음 선교사로 봉사하기 시작했다. 물론 젊은 말일성도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러나 코모 장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자기 부족인 줄루 부족 사이에서는 맨 처음으로 선교사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는 선교 사업을 끝내고 지금은 콰줄루로 돌아와 있다.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약 50만명의 줄루 부족을 위하여 세운 고향 땅으로서 말일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콰줄루의 큰 흑인 마을인 콰마슈에 있는 한 지부의 주례 참석 수는 남아프리카 더번 스테이크의 차피 윈스탠리 부장의 말에 의하면 “수백명”이라고 한다. 그는 줄루 부족 사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더번 스테이크의 더번 제일 와드에서 와드 선교 책임자로 일하며 줄루어를 말하는 맥콤 보웬스 테일러는 줄루 부족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행한 것을 이렇게 회상한다. “우리가 가르치는 일은 대부분이 촛불 하나밖에 없는 초라한 집에서 행해졌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한 신앙을 지닌 이 온순한 사람들은 복음을 손쉽게 받아들였습니다.”

줄루 부족 말일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근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교회가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현재 네 스테이크와 두 선교부에 약 12,000명의 회원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그들은 동서로는 약 2,000 킬로미터(남아연방의 더반으로부터 나미비아의 윈호크까지), 남북으로는 2,600 킬로미터(잠바브웨의 하라로로부터 남아연방의 케이프타운까지)에 걸쳐 퍼져 있다.

마조리 이 우즈



프레토리아의 교회  
회원들. 좌로부터:  
우나 베라부스로,  
파라바시 히라,  
보비 히라.

## “신앙의 수호자”

샌드톤 스테이크 부장인 조한 피 브라마는 비교적 적은 수의 성도들이 수백만 남아프리카 동포들 사이에 퍼져 있으므로 인하여 복음을 더 감사하게 여기고 “신앙의 수호자”가 되려는 동기를 받게 된다고 말한다. “내가 오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교회에 대하여 주로 받고 있는 인상은 이 교회가 대부분이 개종자인 회원들의 생활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교회에 새로 들어오는 회원 이외에도 이 세대 내지 삼 세대 말일성도 가족도 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일 보좌인 프랭크 포우리는 오십 년 이상 교회 회원으로 지내 온 몇 가족에 속한다. 그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개종에 대하여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어머니에게는 우리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이 설명하실 수 없는 몇 가지 복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교회를 찾게 된다면 나는 그 교회에 가입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1934년에 말일성도 선교사들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려 우리가 그들을 맞이했으며 그들은 그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어린이들은 지금은 무너진 모우브레이의 울드홀에서 침례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에 있는 솔트레이크 성전의 사진을 보시면서 언젠가는 그곳에 가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당시 경제 대공황이 닥친 시기였으므로 어머니의 꿈은 실현성이 없게 보였으나 나중에 실현되었습니다.” 조한나는 오랫동안 초등학교 회장으로 봉사했다. 포리 부장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구모라의 남쪽 사자[팔십 세가 되어서도 이 직책에서 봉사하는 어떤 말일성도의 생일 파티를 묘사하는 옛날에 있었던 교회 책자]를 한 부 갖고 있습니다.”

## 인증적인 혼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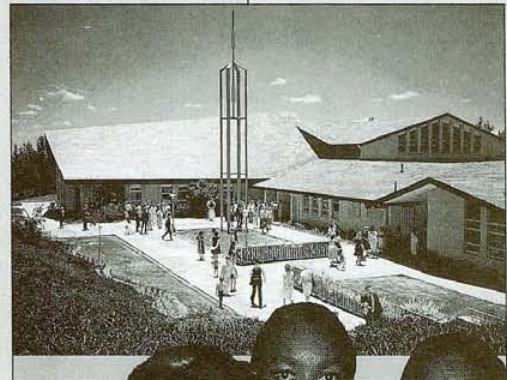
또 다른 충실한 가족은 남아프리카 샌드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보좌이며 삼 대째 말일성도인 에드위나 스와르쯔베르그의 가족이다. 그녀가 장차 남편이 될 이삭에게



바바라 렌치 및 빌 렌치 부부와 그 가족이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동남 해안선 근처의 드라켄스베르그 산맥의 계곡에 있는 농경지. 남아프리카 샌드톤 스테이크 센터. 블레폰테인에서 온 교회 회원인 엘리야스 비스 가족.



남아연방 관광 위원회 제공



교회 성전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정통 유태교 가정에서 자라난 그가 개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는 옛날부터 경전을 보면 늘 성전에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왜 더 이상 지상에 당신의 성전을 갖고 계시지 않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또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특히 시편 22편의 내용을 이해하여 깨닫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그에게는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 스와르쯔베르그 부부는 나중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그들은 프레토리아에 살고 있으며 그곳에서 스와르쯔베르그 형제는 교회의 법률 고문이기도 하고 교회 공보 지역 책임자이기도 하다.

스와르쯔베르그 부부는 남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민족적인 관습 가운데 단 두 가지를 반영할 따름이다. 백인은 전체 인구의 20퍼센트밖에 안되며 수많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흑인이 70퍼센트에 달한다. 또 “유색 인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며, 그들 중 혼혈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다. 그들은 대부분이 일 세기 조금 더 전에 네이털에 있는 설탕 농장에서 일하도록 인도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후손이다. 말일성도 선교사들은 이 모든 인종 사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뿐 아니라 유태인, 회랍인, 폴투갈인도 많이 있고 분리된 단체인 케이프 팰레이는 회교도들이다.

삼 세기 반 이상이나 되는 역사를 통하여 구축된 오래된 사회 관습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 샌드톤 스테이크의 조한 브라머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문화의 재구성 작업을 하고 있으며 엄청난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그렇게 빠른 속도로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이 모든 것이 ‘문화적인 충격’이 되고 있습니다.”

## 평화와 선의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흑인이나 백인을 막론하고 그 회원들 사이에서 평화와 선의의 개념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스와르쯔베르그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관습적인 장벽이 녹아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권을 모든 합당한 남자에게 주도록 범위가 확장됨으로써 흑인 사이에서 선교 사업을 행할 훌륭한 기회가 열렸습니다.”라고 루이스 피 히퍼가 말한다. 그는 남아연방

요하네스버그 지역 대표이며 요하네스버그에서 성전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다. 흑인은 대부분 그들끼리 모임을 갖는다. 소웨토 지부는 전적으로 흑인이 운영하며 흑인 지도력이 커지고 있지만 아직 일시적으로 백인이 관리하는 지역의 흑인 마을에서는 세 개의 흑인 회중이 더 있다. 더반에는 흑인 지부와 인도인 지부도 있으며 시스케이에는 몇 개의 작은 단위 조직이 있다.

요하네스버그의 제임스 밴 질은 “우리는 소웨토 지부의 개척 사업에 있어서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라고 회상한다. 그의 부인인 모린은 그와 함께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이십사 년간 교회 회원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보람있는 경험이었습니니다. 맨 처음 침례받은 사람은 시포 코모로서 그는 이미 옛날부터 스스로 물론경 그룹을 만들어 침례와 신권을 받을 날을 기다리면서 물론경에 있는 원리를 그 그룹에게 가르쳤습니다.”

소웨토 지부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아 마빔벨라는 일곱 가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선교사와 동반하여 선교사가 가르치는 것을 통역한다.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그녀의 생활이며 그녀는 필요 사항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충족시켜 준다. 그들이 없는 학교 운동장과 공공 장소에 나무를 공급하고 심는 것이 그 예이다.

이 할머니는 유치원 관계의 특별한 훈련을 받고 학교 교장을 했으며 현재는 식당과 빵집과 정육점과 한약방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그녀는 겸손하게 이렇게 간증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복음에 대하여 나를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복음과 교회가 참되며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가르친다는 매우 강한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망인인 이 할머니는 요하네스버그 성전이 헌납된 다음 기회를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자기 남편에게 인봉되었다.

마빔벨라 자매는 평화를 위한 다인종 여성 이사회에서 봉사하며 수많은 여성 조직의 회원이고 설립자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 집의 문을 두드릴 때 무섭지만 주님이 나를 그 특별한 집으로 인도하셨으며 따라서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다짐합니다.”

## 간증이 자라도록 도와 줘

남아프리카 성도들에게는 복음 원리가 가족 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삼십오 년 동안 회원인 샌드톤 제일 와드의 바바라 렌치와 윌프레드(빌) 렌치 부부는 “우리 자녀와 손자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시는 기쁨”을 이해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의 간증은 우리의 간증이 커지도록 도와 줍니다.” 그들의 아들인 아이안과 마이클은 남아프리카 샌드톤 스테이크 부장단의 제일 보좌와 제이 보좌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교회의 모든 보조 조직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참석도 훌륭하다. 교회 교육 기구의 지역 책임자인 도널드 이 하퍼는 이렇게 말한다. “신학 연구원 중등부와 대학부는 1974년에 시작했으며 우리 젊은이의 70퍼센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정말로 헌신적이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6시부터 7시까지 공과에 참석하고 나서 아침 8시경에 시작하는 학교로 곧장 가는데 이것을 일주일에 5일간 계속합니다.” 저녁반도 또 있다.

## 첫 선교사들

남아프리카에서 복음 메시지가 뻗어 나가리라는 것은 그곳에 맨 처음으로 선교부장으로 임명된 제시 하벤이 130년 전에 예견한 바이다. 그는 동반자인 윌리엄 홈즈 워커 및 레오나드 아이 스미스와 함께 희망봉에서 교회를 조직하고 그 땅을 선교 사업을 벌일 장소로 헌납했다. 그는 1853년 5월 23일 케이프타운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인 라이온즈헤드의 비탈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정직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과 반대로 인하여 초기에는 발전이 느렸지만 그 헌납이 있는 후로 여러 해 동안 그의 말이 참되다는 것이 나타났다. 개종자들이 더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사회로 이주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남쪽의 말일성도 숫자는 일 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저조했다. 프론티어 전쟁과 남아프리카 전쟁(1856~61, 1865~1904년), 및 일차 대전과 이차 대전 때 선교사들이 철수한 시기 등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충실한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을 수호했다.

“우리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본부로부터 격리되어 있다고 느낄 때가 가끔 있으며 교회 본부를 대표하는 분들이 방문할 것을 간절히 고대해 왔습니다.”라고 남아연방 더반 스테이크의 파인타운 와드에서 상호부조회 문화의 정수 교사로 일하는 데비 바이얼이 말한다.

사실상 더반은 지상에서 교회가 조직된 어떤 지점 못지 않게 솔트레이크시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하벤 선교부장이 남아연방의 첫 선교부장으로 도착한

이래로 완전히 일 세기가 지난 다음에 총관리 역원인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1954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왔다. 뒤이어 다른 지도자들이 왔다. 1972년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가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서 1973년에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이,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방문했다. 김블 대관장은 당시 남아프리카의 교회 본부가 되어 있던 요하네스버그에 머무는 동안 이 땅을 다시 헌납했다.

## 교회를 강화시키

이런 방문이 회원들에게 격려가 되었으며 교회 성장을 빠르게 하여 그 결과 1978년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남아프리카 최초의 지역 대회를 갖게 되었다. 당시 교회 대관장인 김블 대관장이 교회 지도자 몇 사람과 함께 참석했다. 두 사람 이상의 총관리 역원이 동시에 남아프리카 땅에 발을 디딘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이 나라 전역의 가족들이 이 특별한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몇 달 전부터 여행 준비를 했다.

히피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선교사들이 부름받고 있는 것을 목격해 왔으며 귀한 선교사들이 지금 스테이크와 상호부조회 회장단에서 감독으로서 보좌로서 봉사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교회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특별히 획기적인 일은 1985년 8월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이 헌납된 것이었다. 수많은 성도에게 있어서 성전이 그들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들은 정기적으로 참석하며 자신이 맺은 성약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성전의 가치에 대하여 더 배우고 있다.

이십구 년 전에 개종했으며 지금은 성전에서 기록 책임자로 일하는 실비아 제이 밀네 자매는 자신과 함께 봉사하는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주님의 집에서 종이 되는 것은 굉장히 큰 특권입니다. 도움을 주는 동료들의 사랑에 찬 영은 죽은 자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남아프리카 성도들은 그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실질적인 증거로 새로운 성전이 그들 사이에 있는 가운데 1855년 12월에 제시 하벤이 남아프리카를 떠나면서 자신의 선교 사업을 평가한 것을 기억하며 조용한 마음으로 그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느낍니다. 이 땅에 선한 사업의 기초가 놓였으며 하나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지금은 뿌리를 잘 내리고 성숙하고 값진 열매를 맺고 있다.

작가인 마조리 이 우즈는 요하네스버그의 지부 계보 도서관 담당 스테이크 도서 책임자 보조이다. 그녀는 남아연방 샌드톤 스테이크의 샌드톤 제일 와드 회원이다.





## 범세계적인 국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어딘가 장엄하고 당당하고 광활한 느낌이 든다. 남쪽 끝에서 인도양과 대서양이 합류하며 내륙 지방의 그레이트카루 고원에서 보면 어느 쪽을 보든지 끝없는 지평선이 펼쳐진 것을 볼 수 있다. 북서쪽의 칼라하리 캄스북 국립 공원이나 북동쪽의 크루게르 국립 공원에서는 아프리카를 유명하게 해주는 야생 생활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이 나라의 본산이며 법적 수도인 역사적인 케이프타운과 “황금의 도시”인 활기에 넘치는 요하네스버그는 세계의 대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흑인 역사에 깊이 뿌리를 박고 있는 범세계적인 국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일찌기 십오 세기에 구라파적인 영향을 키웠다. 폴투갈의 항해사인 바톨레모 디아즈가 1488년에 지금의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약 400킬로미터 떨어진 모셀 베이에 상륙했다. 이백 년 후 화란 동인도 회사가 그들의 무역 함대를 위하여 케이프에 휴식 기지를 세웠다. 그 이후로 줄이온 주로 불란서, 독일, 영국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 땅의 개발을 도왔다.

화란의 동인도 회사의 활동에 의하여 많은 화란인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왔다. 그 후손이 독일 및 불란서 이민의 후손과 함께 오늘 날 남아프리카 태생 백인의 대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그들 특유의 언어를 쓰고 있다. 그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백인의 60퍼센트를 점하고 있다. 나머지 40퍼센트는 화란 통치를 뒤이어 영국이 통치한 기간과 그 이전에 영국으로부터 이주해 온 사람의 후손으로서 주로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좀더 최근에 이주한 사람들이다.□

# 성찬기

존 에스 태너

**교**회 회원에게 가장 낯익은 성구는 성찬 기도문이 담긴 모로나이서 4장 3절, 5장 2절 및 교리와 성약 20편 77절, 79절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어떤 성구를 읽는다고 할지라도 매주 일요일에는 틀림없이 이 성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 순서가 조정되기 전에는 일요일 개회 순서와 성찬식에서 두 번 들었습니다. 내 계산에 의하면 나는 이 구절을 3,300번 이상 들었습니다.

성찬 기도문은 주님이 계시해 주신 구체적으로 확정된 문구가 있는 몇 가지 안되는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분은 그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말씀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의 뒤에 있는 진정한 의미에 진실로 귀기울이지 않고 그 기도문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 성찬 기도에 관한 주해

나는 이 기도문의 문구를 하나하나 다시 생각하고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생각하며 중요한 낱말에 집중함으로써 영적으로 풍성한 보상을 받아 왔습니다. 아마 나의 그러한 사색이 나 자신의 성찬 예배에 도움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성찬 예배에도 도움이 될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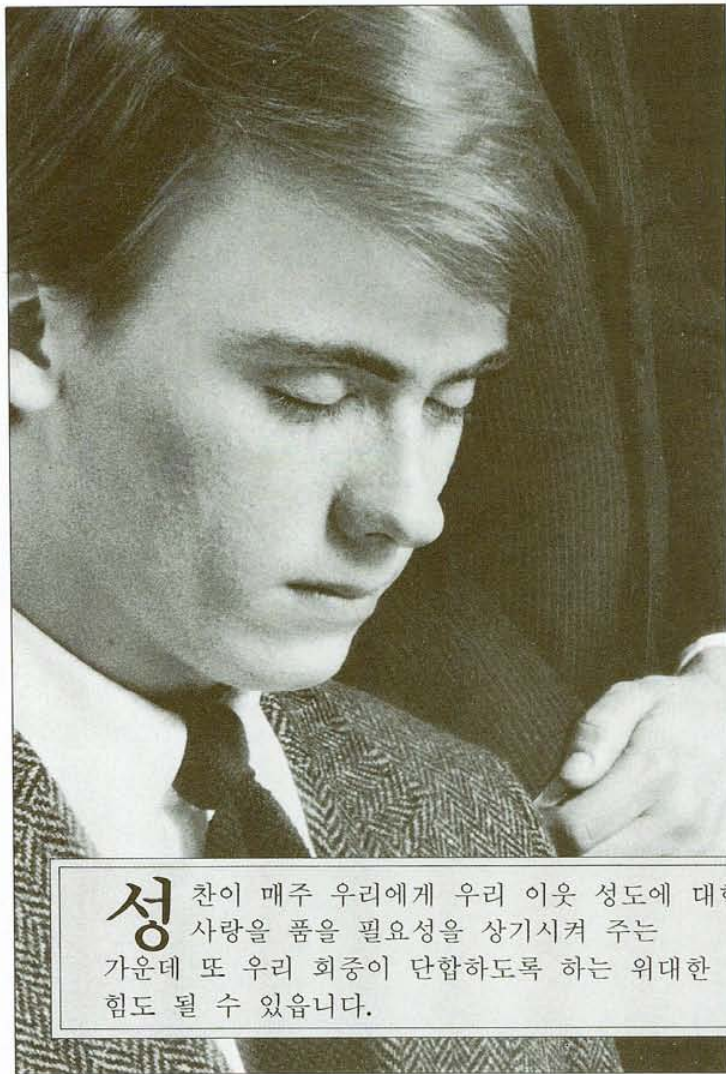
### 1.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떡과 물의 축복문이 모두 이렇게 시작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두 번 부르며 그때마다 우리에게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 되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구세주의 놀라운 개인적인 희생에 관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대속의 그 무서운 고통과 희생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간파할 때가 흔히 있었습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거룩하신 양친께서 그의 아들이 겪지 않도록 막으실 수도 있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시는 괴로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동산에서 그의 아들이 육신의 모든 구멍이 열리고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큰 고통과 슬픔의 순간에 당신의 아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눅 22 : 42)

“나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기 자녀가 비탄에 빠져 외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도움을 주지 않을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장막 저편에서 이렇게 죽어 가는 고통을 보시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마치 죽어 가는 아이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그 마지막 고통을 보지 않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 나가는 어머니처럼 그분도



**성**찬이 매주 우리에게 우리 이웃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을 필요성을 상기시켜 주는 가운데 또 우리 회중이 단합하도록 하는 위대한 힘도 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같은 고통을 겪으시면서 머리를 숙이고 당신의 우주의 어떤 다른 곳으로 가서 숨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 그 순간에 마음 속으로 당신 아들에 대한 사랑만 마음에 지니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합니다.”(멜빈 제이 벨라드, 의를 위한 십자군,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사, 1966년, 136~37페이지)

그러므로 성찬 기도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도 아버지시며

# 도 에 대한 깊은 사색



그의 희생이 대속에 꼭 필요했다는 것을 다시 상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2. “우리는 비옵나니”

우리는 비옵나니, 성찬은 함께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침례 성약을 맺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계명대로 생활하겠다고 다시 약속해야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정식으로 성도들과의 우정 관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 우정의 결속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형제들은 형제애로 결속되어 하나가 되어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모였으며 종종 새벽에 그 모임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형제애라는 요소는 언제나 성찬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똑같은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형제애 속에 모여서 각자 모든 사람 서로에 대한 신뢰심을 표현합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년 1월, 13~14페이지)

수많은 성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찬으로부터 좀더 충분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우리 이웃 성도들과 화해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을 범한 자가 있으면 화해하기 전에는 성찬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교성 46:4; 고전 10:21; 니삼 18:28~29; 교성 20:68~69 참조) 우리는 모두 똑같이 주님의 영과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비옵나니”

## 3.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상 아담이 처음으로 희생 제물을 바쳤을 때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아담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천사가 아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회개하며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니라.”(모세서 5:8)

왜 우리는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아버지께 대하여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신 것을 자주 내 마음에 상기시켜 줍니다.

“아버지여 당신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아무 죄도 짓지 아니한 자가 겪은 고난과 죽음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 흘린 피를 보소서. 당신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주신 자의 피로소이다.

“그러하오니 아버지여, 내게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나의 이름을 믿는 형제들을 용서하소서”(교성 45:4~5)

이 말씀은 “당신의 아들 이름으로” 드린 성찬 기도가 더 큰 의미를 지니게 해줍니다.

## 4. “이 떡(물)을 먹는 사람마다...하시도록 이 떡(물)을 축복하시며 성결케 하소서”

떡은 그분의 육신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떡을 취할 때 우리 주님이 겪으신 육체적인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분의 등을 가죽 채찍으로 내려칠 때의 고통과 그의 이마에 가시가 박힐 때의 그 쓰라린 고통을 기억합니다. 그가 골고다로 가시면서 그 먼지나는 길을 통하여 비틀거리며 지고 가시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떨어뜨려 정위치에 세울 때 그의 육신이 찢어지게 하는 그의 손목을 뚫고 십자가에 박힌 못에

대하여 그가 체중을 다리에서 팔로 이리저리 옮겨도 전혀 고통이 줄어들게 해주지 않는 그 잔인한 십자가형에 관하여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속주나 아버지께서는 언제든지 원하신다면 그것을 정지시킬 수 있었으므로 이 모든 고통이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물은 그가 흘리신 피를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컵의 물을 마시면서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때의 그 영적인 고통을 기억합니다. 나는 그분의 고통과 사랑이 너무나 커서 모든 구멍으로부터 피를 쏟으신 것세마네 동산을 기억합니다. (모사이야서 3:7; 눅 22:44; 교성 19:16~19 참조)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떡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매주 주중에 우리의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는 과오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 다시 바치려고 열심히 구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영적인 힘이 채워질 것입니다. 멜빈 제이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성찬 의식에는 인간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뜻하게 해주는 영이 참여하고 있다...우리는 영의 상처가 치료받으며 짐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성도의 빛, 1983년 7월호, 19페이지)

진실로 떡과 물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모든 사람의 영혼을 먹일 수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하여 축복하고 성결케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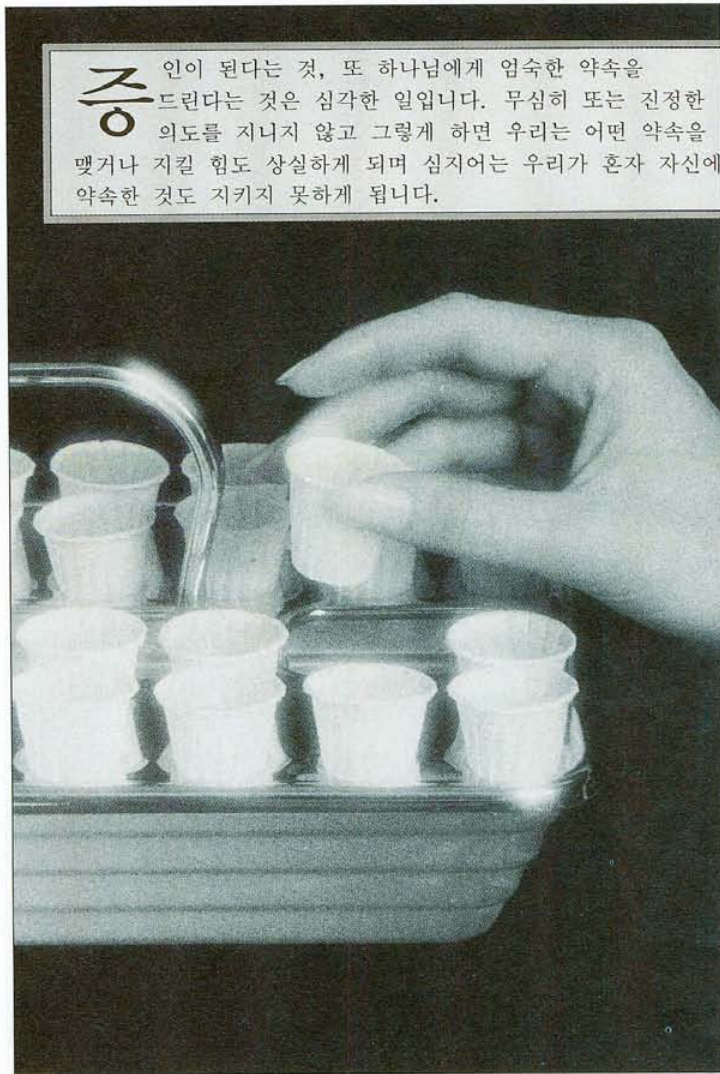
##### 5. “몸(피)을 기억하여 떡게 하소서”

우리는 기억하여 성찬을 취합니다. 이것은 성찬이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기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대속의 상징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법에 의하여 살과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순한 교리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박해받고 살해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계시된 이 성찬 기도문이 이 원리를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상징물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하러 성찬식에 옵니다.

##### 6. “또 저희들이 기쁘게...당신 앞에 증거하게 하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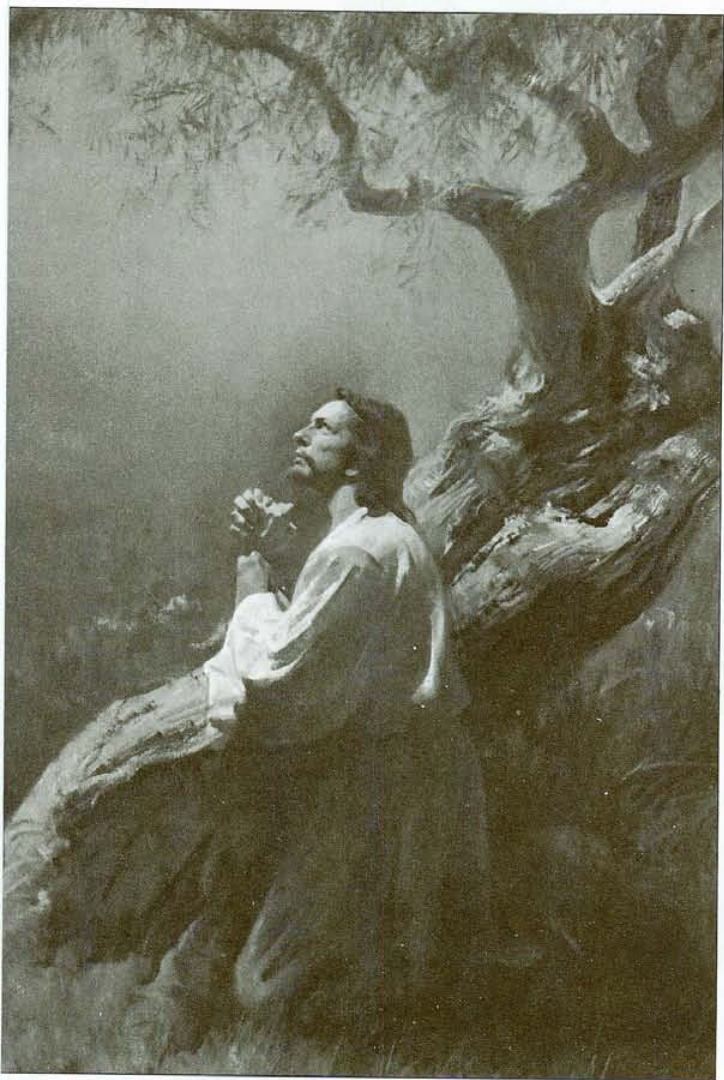
그러나 우리는 단지 지나간 것을 기억하려고 모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 또 앞으로 증거할 결심을 하기 위하여 옵니다. 증인이 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로버트 볼트의 연극 모든 계절을 위한 사람에서 토마스 모어는 맹세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약속”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뉴욕: 빈테지 출판사, 1962년, 81페이지)

**증**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에게 엄숙한 약속을 드린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무심히 또는 진정한 의도를 지니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맺거나 지킬 힘도 상실하게 되며 심지어는 우리가 혼자 자신에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또 하나님에게 엄숙한 약속을 드린다는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무심히 또는 진정한 의도를 지니지 않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맺거나 지킬 힘도 상실하게 되며 심지어는 우리가 혼자 자신에게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떡의 축복 기도에서 기쁘게라는 말을 합니다. 나는 잠시 손을 멈추고 이 힘있는 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것을 기쁘게 한다는 말은 기쁜 마음으로 자유로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자신의 자유의지로 이런 약속을



하되 기쁜 마음으로 행합니다.

7.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생각하여 그가 주신 계명을 지킬 것”

우리는 떡의 축복 기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처음 약속하는 것입니다. (교성 20 : 37 참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신임인지 모릅니다.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은 영의 세계에서 그의 할아버지인 조지 에이 스미스를 만나는 꿈을 꾸 적어 있었습니다. 조지 에이 스미스는 생전에 사도였으며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손자에게 “나는 네가 내 이름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알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대관장은 얼른 자기 생애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미소지으며 할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할 만한 일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지 에이 스미스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서 그의 큰 팔로 이름이 같은 손자를 꼭 안아 주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시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지상에서 내가 처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배개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임프르브먼트 이라, 1947년 3월호, 139페이지)

처음에는 침례받을 때 그 다음으로는 성찬식에서 매주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드는 우리도 주님의 포용을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는 우리가 하늘 아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그의 이름으로 무엇을 해왔는가에 관하여 상세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항상 그를 기억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안식일을 보낼지라도 월요일 아침이 오면 곧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억누르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인간이 잘 잊는 경향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은 대속 이외의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슴으로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마음 속뿐 아니라 “육의 심비”(고후 3 : 3)에도 새겨져야 합니다.

8. “그의 영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도록”

만일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로 성약을 맺는다면 주님께서서는 그 보상으로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영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하늘의 은사입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활에서 영을 느끼지 못할 때나 구세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태복음 27 : 46)라고 외치신 경전 기록에 의하여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돕는(요한복음 14 : 26 참조) 성령은 그의 임재하심이 달려 있는 바로 그 상황 즉 우리가 늘 기억하는 상태를 이루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하늘 나라의 경제에는 놀라운 영적인 공동 작용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의를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더 그것을 행할 축복을 받습니다.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자 노력하면 할수록 주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요한복음 14:26)는 부름을 받은 분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보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공경하고 마음 속에 주님을 간직합니다. 그러나 어떤 계명을? 우선 나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 위한 집건을 할 때 받는 질문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 더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진실로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인간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요한복음 14:23)

### 9.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엄숙하게 봉인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말을 복창하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 사회로써 우리를 하나로 뭉쳐 줍니다. 우리는 이 훌륭한 기도문을 주의깊게 귀기울여 들은 다음 동의한다는 것을 정식으로 표시하기 위하여 이 말을 사용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들과 밀접한 우정 관계를 쌓는 일에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직접 밀접한 우정 관계를 쌓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현대의 계시에서 당신께서 다시 성찬에 참여하실 의로운 자의 위대한 모임에 대하여 예언하셨습니다. 그 모임에는 “내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가려 내어 내게 주신 모든 자”(교성 27:5~14)뿐 아니라 모로나이, 일라이어스, 침례 요한, 엘리야, 애굽으로



**우**리는 떡의 축복 기도에서 주님의 이름을 받들 것을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침례받을 때 처음 약속하는 것입니다.(교성 20:37 참조)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든다는 것은 얼마나 큰 특권이며 얼마나 큰 신임인지 모릅니다.

팔려갔던 요셉, 아곱, 이삭, 아브라함, 아담,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함으로써 그 축복받은 충실한 자들 사이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그 이름을 공경하는 그분의 품안으로 다시 기쁨 가운데 받아들여지게 될 것입니다.□

브리검 영 대학교 영어과 조교수인 존 에스 태너는 비와이유 제111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있다.

## 이야기해 봅시다

“성찬 기도에 대한 깊은 사색”을 읽은 다음 개인적으로나 가족 단위로 다음 질문과 아이디어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1. 우리는 어떻게 성찬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우정의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나?
2. 성찬은 어떻게 아들의 사랑뿐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나?

3. 나는 어떻게 하면 좀더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받들 수 있나? 나는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공경할 수 있나?
4.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축복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나?
5. 다음 일요일에 성찬 축복 기도 시간 동안 우리가 약속하는 것과 우리가 그런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을 다시 살펴보면서 성찬을 받을 준비를 갖춘다. 그리고 나서는 성찬이 집행되는 동안 그런 약속에 대하여 사색한다.

# 애비 루스

테브라 허긴스 베어드

**의**사가 “아기에 대하여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라고 침울하게 말했다.

나는 그에게서 눈을 떴고 남편 랜디를 보았을 때 우리 태아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의사는 뇌수종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뇌에 물이 고이는 증세이다. 뇌 손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은 그 상태가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그 의사는 나를 검진할 때 한번도 태아의 머리가 커진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상태가 그리 오래 계속되지 않았으리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비상 제왕 절개 수술밖에 없었다.

그 의사는 계속해서 낮고 단조로운 음성으로 말을 계속했다. “위험성이 많은” 제왕 절개 수술이라는 말을 했다. 그는 나같은 이런 경우에는 산모를 구하기 위하여 태아를 희생시켜야 할 때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남편이 나와 태아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그때 그는 장로가 된 지 겨우 한 달이 조금 넘어 있었으며(우리는 불과 이 주일 전에 성전에서 인봉받았다), 이때가 그로서는 처음으로 신권을 행사하는 기회였다. 나는 남편에 대한 감사와 그가 합당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하여 새로운 감사의 생각으로 그 축복을 받았다. 그후 곧 평온한 느낌이 들었으며 나는 태아와 내가 모두 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 “나는 죄의식을 느꼈다”

나는 수술실로 옮겨지고 나서 공허한 상태에 빠졌던 것이 회미하게 기억난다. 그 다음에 내가 들은 소리는 멀리서 들리는 아기 울음 소리였다. “딸입니다. 보고 싶으세요?”라고 말했다.

나는 “싫어요.”라고 말하며 눈을 꼭 감았다. 갑자기 나는 딸을 보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져서 겁을 먹게 되었다. 그것은 사태가 이렇게 변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준비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조용히 아기를 데리고 가자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굉장한 죄의식이 들었다.

새벽 한 시 반에 갑자기 잠을 깨었다. 그 병실은 창문을 통하여 보름달 빛이 들어와 퍼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두웠다. 나는 간호원을 불러서 내 육신의 굉장한 통증에 대하여 조치를 해주도록 부탁했다. 그리고 나서 내 아기를 보고 싶다고 했다. 간호원이 아기를 안고 왔을 때 맨 처음 떠오른 생각은 “안젤라!”라는 것이었다. 그 아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장녀와 비슷하게 보였다. 머리가 너무 컸지만 나에게에는 예쁘게 보였다.

나는 간호원이 아기를 데려간 다음 오랫동안 잠이 깬 채 누워 있었다. 가슴을 저미듯이 아픈 마음 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저의 아기를 도와 주옵소서!”라고 호소했다. 어둠이 천천히 사라지고 창문을 통하여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그 잠 못 이루는 밤 내내 오랫동안 울었다.

## “아기에게 뇌가 없어요”

그날 하루 종일 남편과 나는 신경외과 의사가 아기의 실험 결과에 대한 소식을 갖고 도착할 것을 기다렸다. 마침내 밤 열 시 반에 도착한 그 의사는 냉정하고 침착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는 투명스럽게 “이 아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뇌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우리에게 어떤 느낌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말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의사가 남편과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같이 말을 계속할 때 그 냉정한 태도에 어안이 병병해졌다.

“아기의 뇌가 형성되지를 못했습니다. 머리 속에 있는 것이라고는 뇌의 줄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아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소한도로 필요한 것밖에 안됩니다. 그 부분은 심장, 호흡, 소화기 계통, 반사 신경 등 모든 무의식 기능들



필름 원근기

**하** 나님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랑과 신앙 안에서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경험으로 애비를 바라보게 되었다.



통제합니다. 아기는 결코 몸을 뒤집거나 기거나 걷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도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눈과 귀가 멀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도 여러분에게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호스를 통하여 음식을 먹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우리 아기가 기껏해야 약 육 개월밖에 못살 것으로 추측했다.

그 의사가 병실을 나가자 우리 아기에 대한 우리의 희망도 모두 그와 함께 우리 곁을 떠나 버렸다. 남편과 나는 서로 꼭 끌어안고 우리의 흐트러진 감정을 다시 정리하고 바로잡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우리는 우리 아기가 정신 박약이라는 소식을 듣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소식에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이다. 마치 온 세상이 우리 머리 위에 무너져 꼭 누르는 것 같았다.

우리가 애비 루스라고 이름붙인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삼 일이 지날 때까지 나는 그 아기를 몇 번밖에 안아보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그 중요한 결속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늦게 결정하고 싶지 않은 결정을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 아기를 보려고 중환자실로 갔다. 나는 요람 옆에 서서 그 아기가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았다. 간호원 한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섰으며 나는 슬프게 머리를 흔들었다.



**슬** 품에 가득 차 있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려—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달래 준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

### “그녀의 영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조용하게 “저 불쌍한 어린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전혀 모르고 있지요?”라고 물었다.

그 간호원은 나를 향하여 확신을 갖고 이렇게 말했다. “아마 그 아기의 마음은 모르고 있겠지만 영은 알고 있습니다.”

그 간단한 말이 나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다. 왜 내가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는가?

그날 밤 늦게 나는 길게

출렁거리는 꿈술머리에 치렁거리는 흰색 옷을 입은 아름다운 처녀가 안개를 뚫고 나를 영접하기 위하여 팔을 앞으로 뻗치고 걸어오는 꿈을 꾸었다. 그 순간 나는 내 목숨이 다하여 이 지상을 떠나는 시기가 올 때에는 애비가 완전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에 그녀로부터 돌아설 수 있을까?

일단 집으로 오자 애비는 신경외과 의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많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녀의 머리가 급격하게 커지기 시작해서 그 신경외과 의사는 너무 많이 고이는 물을 빼내기 위하여 작은 호스를 머리에 연결해야 했다. 그는 그것이 불필요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으나 우리로서는 방관하고 아무 것도 안한다는 것은 그녀가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녀의 심장에 문제가 있었으며 우리는 그녀가 수술을 견디지 못하고 죽지 않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했으나 다른 방도가 없었다.

애비는 그 수술을 잘 견디어 냈으며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해서 살아날 수 있었을까? 마침내 그녀의 식욕이 향상되어 체중이 늘기 시작했다.

그녀를 다시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그녀의 귀가 들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는 굉장한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곧 그것이 축복이라기보다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아무리 작은 소리만 나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내가 그녀의 방에 걸어 들어가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도 그녀가 흥분해서 비명을 지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애비는 자기 주변의 여러 가지 다른 소리에 응답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겁에 질렸던 것이다.

### “내가 어떻게 할까?”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든 여름의 시작이었다. 애비 루스는 매일 밤새도록 잠들지 않고 울어서 남편과 나는 정신이 나갈 것같은 생각이 들 지경이 되었다. 새벽 다섯 시나 여섯 시까지 비명을 지르고 나서야 겨우 잠들 때가 많이 있었다. 아침 열 시 반이나 열한 시가 되면 나는 자신을 재촉해서 그녀에게 가서 상태를 알아보아야 했다. 혹시 죽어 있으면 어떡하나? 난 어떻게 하지? 내가 그런 상황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이 나의 다른 두 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런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조금만 더 계속되면 완전히 미치게 될 단계에 도달했다. 9월 말이 다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도움이든지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주립 장애자 훈련 학교의 책임자와 만날 약속을 했다.

그 주립 학교의 직원들은 매우 이해심이 많고 친절했다. 마침내 우리가 그 동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정말로 이해해 주는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우리 딸을 맡아 주어 우리가 한 주일 동안 쉬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그 한 주일이 끝나자

똑같은 생활이 다시 시작되었다. 딸은 끊임없이 밤낮으로 울었으며 우리가 그녀의 침대 곁에 서거나 그녀를 안고 함께 운 적이 수없이 많았다. 나는 절망적이 되었으며 이 일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다. “대체 이것이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나?”라고 자문했다. 두 큰 아이는 그동안 등한시한 것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결혼도 마찬가지로 마참가지였다.

### “내가 응답을 받았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러나 남편과 나는 의견이 달랐다. 그는 애비를 그 주립학교에 맡기는 것은 딸을 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나는 그것이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우리 가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딸에게 필요한 대로 하루 스물네 시간 계속해서 돌보는 일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런데도 내가 딸을 버린다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었으며 나는 비탄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호소했다. 그분은 이 내용을 전부 다 아시지만 어느 날 밤 늦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모든 내역을 말씀드렸다.

그날 밤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오래 또 더 간절하게 기도했다. 마침내 기도를 끝냈을 때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 베개를 베고 누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을 응시했다.

바로 그 순간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왔으며 나의 기도와 가슴 아픈 고통을 위로하는 응답으로써 왔다. 우리는 애비를 주립 훈련 학교에 맡겨야 할 뿐 아니라 그녀에 대하여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딸은 우리가 왜 그 학교에 맡기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부모들은 또 다른 지시를 받았을지 모른다. 나는 단지 우리가 받은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만 알며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영감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다.

1980년 11월 1일 애비는 주립 훈련 학교에 영구 수용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녀를 우리 집에서 돌본 것에 대하여 한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다. 그 때문에 애비는 우리 가족의 필수적인 한 부분이 되었다.

애비가 태어나게 된 당시

우리 생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시련을 가능한 한 건디기 쉽게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 와드에는 사랑이 많고 염려해 주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또 훌륭한 감독님이 계셨다. 그분은 복음과 복음 성약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 나는 이런 축복에 대하여 영원히 감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애비를 사랑과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생각하게 되었다. 애비는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려는 마음을 더 크게 해주었다. □

편집자 주 : 의학적으로 뇌수종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애비 루스는 지금도 유타주 아메리칸 포크에 있는 주립 훈련 학교에 살고 있다. 소리를 듣는 상태는 계속되고 이제는 놀라지 않는 한 더 이상 소리 때문에 울지는 않는다. 머리는 들 수 있으나 그 이상은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 뇌가 발달하지 못한 것을 제외하고는 애비 루스의 중요한 신체 기관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말을 걸면 웃음으로 답할 때가 흔히 있다. 베어즈 부부는 애비 루스가 태어난 이후로 두 아들을 낳았으며 둘 다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발달해 있다.

# 우리로 돌아오라

하트만 렉터 이세  
칠십인 제일 정원회

## 대

관장단은 1985년 12월  
22일 처치 뉴스를 통하여

비활동적이며, 회원 자격이 정지되거나  
파문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의  
활동으로 돌아오라는 특별한 권유의  
말씀을 발표했다. 이러한 권유의  
말씀은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것으로, 교회 회원들이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계명을 지킴으로써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요한복음 13:17)

주님께서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교회에서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기를  
원하신다. 다시 활동적이 된다는 것은 이 경륜의 시대와  
다른 경륜의 시대에서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가 된다.

물론경의 세 목격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여 준 판들을  
실제로 보았으며, 그들이 보고 들은 바의 기록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러한  
간증을 키우는 경험을 한 뒤에도 그들은 각기 교회로부터  
감정을 상하게 되고 불평을 하고 끝내는 배도를 하게  
되었다. 두 사람은 뒤에 돌아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원래의 열두 명의 회원 중에서, 일곱 명의 배도자는  
파문되었다. 세 명은 침례의 물속에 들어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 활동을 재개했다. 네 명은 그렇지 않았다.

분명히 예수님은 그의 성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와 같은  
문제로 염려하셨음이 분명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그는  
비활동 또는 참가하지 않게 되는 세 가지 다른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재활동 촉진을 위해서 적어도 세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  
비유의 주제였다. (1) 잃은 양(누가복음 15:4-7),



- (2) 잃어 버린 동전(누가복음 15:8-10),
- (3) 탕자(누가복음 15:11-32)

### 잃은 양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양이 방황하며  
길을 잃게 되었음이 분명해진다.

그는 길을 잃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흥미를 잃고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잃게 되었을  
것이다. 잃은 양을 다시 우리로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나가서 양을 찾고 그를 둘러 보고 다시 우리로  
데리고 와야 할 것이다. 대개 그 양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뛰고 달리며 즐거워 할 것이다.

### 잃어 버린 동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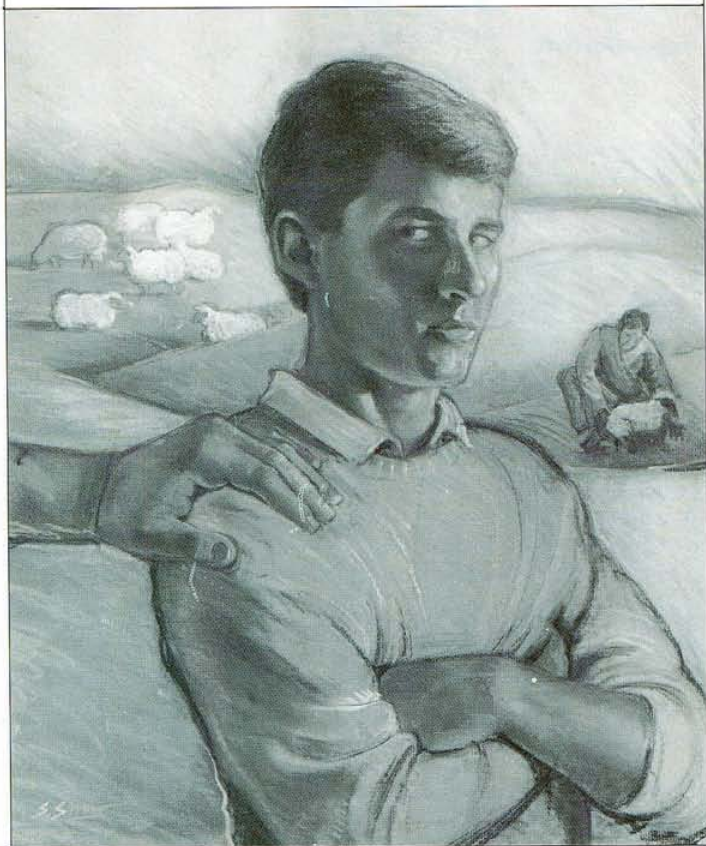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에 보면, 동전은 소유자의 부주의로  
잃게 되었다. 잃은 것을 알게 되면 소유자는 잃은 돈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아야 할 것이다.

나는 한 젊은 말일성도 아버지가 미국의 관습에 따라, 첫  
아이의 출산을 알리기 위해 여송연 한 상자를 산 경우를 알고  
있다. 고지식하게도 그는 감독님에게 여송연 하나를 내밀었다.  
감독은 그 아버지 앞에서 그 여송연을 깃부수어 쓰레기통에  
던져 버렸다. 생각없이 한 이 행동은 새 아버지의 감정을  
크게 상하여 그는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다. 실제로  
그는 그의 모든 가족, 자녀들과 손자들도 모두 교회 밖에서  
길렀다.

내 의견으로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잃게 된 것에 대하여  
감독이 일부나마 책임을 져야 하며 이 “동전”을 찾아  
되돌아오게 하기까지 찾아보았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그가  
그의 생각없는 행동에 대하여 즉시 사과를 했더라면, 새

# 주

님은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에서 정을 느끼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팔을 내미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재활동 촉진은 이 경륜의 율법의 시대에 교회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의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다시 돌아왔을 것이며 전보다 더 신앙이 강해졌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 비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우리는 그 감정을 풀어주고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찾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 탕자

세번째 활동 촉진의 비유로서 이 어린 아들은 자신이 위해서 길을 잃게 된 것이었다. 그는 길을 헤맨 것도 아니고, 아버지의 게으름으로 길을 잃었던 것도 아니다. 그는 집에서 나갈 것을 계획했으며, 필경은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이다. 흔히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범법한 결과로 스스로 큰 고통을 받게 되기까지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비유에서 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 자신의 고통으로 자신이란 일을 깨닫게 되어서야 돌아갈 결심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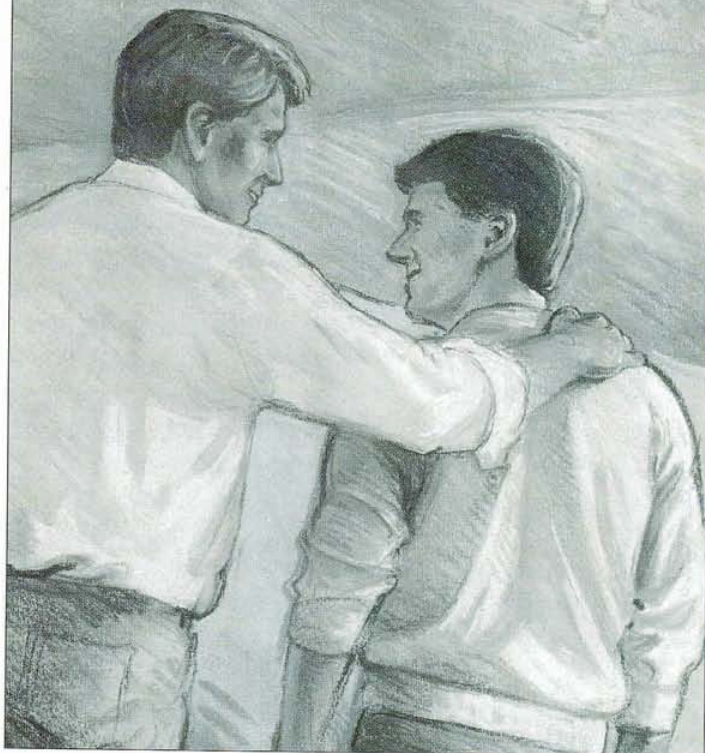
그러한 경우에, 우리의 책임은 우리로 돌아오는 사람을 받아들일 만한의 준비를 갖추고 가능한 한 쉽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회개의 특권을 위해 갚아야 할 것을 남김없이 다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인정없이 서 있지는 않아야 한다.

비유에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 오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아들이 돈을 더 요구하려고 오는 것이라는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조금도 비난하지 않았음은 이 단순한 행동에서 너무나도 명백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에게는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야 할 필요가 너무나도 절실하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종일토록 손을 뻗쳐 우리들을 살펴보심으로써, 영원히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주신다. 그는 약속하셨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찌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찌라도 양털같이 되리라”(이사야서 1:18)

사람들은 아버지가 충실한 첫째 아들에게 “내 것이 다 네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심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감싸 주어 그들이 다시 활동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다.



것이로다”라고 그에게 말했기 때문에 그가 둘째 아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사랑의 태도가 아니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것”이다. (모로나이서 7:46 참조) 나는 이 비유가 구세주께서 이들 두 아들들의 비교되는 장점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 비유는 우리의 길 잃음에 관계없이, 주로 아버지의 선하심을 보여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란다. 나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원한다. “아버님,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나누어 동생에게 다시 그 몫을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러면, “내 아들이, 송아지를 또 한 마리 잡지. 이번에는 네가 다시 태어난 것이니, 이번엔 너를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다.

### 가장 으뜸이 되는 것

사랑,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며, “실족하지 아니하”며,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로다”(모로나이 7:46~47 참조)

우리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우리 형제 자매를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고, 교회에서 활동적이 되도록 되돌릴 수 있을 것이다.

야고보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야고보서 5:19~20)

길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죄의 일부는 우리 자신의 것이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말일에 그 축복에서 유익을 받게 될 것이다. □

# 너는 우리의 기도 안에

키어스튼 크리스턴슨

“**선**교사  
훈련원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말해 주지  
않았는 데.” 음울한  
듀셀도르프 보도에서 나의  
동반자의 뒤를 따라가며,  
더러운 눈길 속을 언 발로  
종종 걸음을 치면서 생각나는  
것이라고는 이런 것밖에  
없었다.

내가 문법과 어휘와 토론  
및 성구로 가득 차고 영의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커지는 집중적이고  
영화로운 이 개월을 마친  
후에 선교사 훈련원을 떠난  
것은 일주일도 미치지  
않았다. 선교 지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헤아릴 수도  
없는 기쁨과 내가 가져온  
메시지로 인해서 변화하게 될  
인생에 대하여 교사들과  
총관리 역원들에 의하여  
수없이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내 귀에 울리고 있었다.

나는 그날 전도를 하면서  
배반감을 느꼈다. 내가 볼 수  
있는 유일하게 변화된 인생은  
나의 인생뿐이었다.  
아리조나의 파스한  
햇볕으로부터 음산한 독일의  
겨울로 그리고 선교

사업이전의 자유로부터 피로만 쌓여 가는 신체적인 일과 쓸도  
없는 계약을 받는 생활 형태로 바뀐 것이었다.

우리에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어  
보려고 끝없이 계단을 올라가면서 기쁨이라는 것이 도무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한마디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문을 닫아 버리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떻게 진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알 수가 없는 것은 엘마와 사울과 같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 영,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전해  
주기 위하여 암몬과 아론과 같은 선교사를 인도해 주고, 모든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을 위해 전진해 나아가도록  
확신과 사랑의 힘을 지닌 아빈아다이하와 레이맨인 사무엘과  
같은 사자들을 보내 주신 약속의 영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는  
것이였다.

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한 아무런 사랑도,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기쁨도, 나를 위안해 주시거나 영감을 주시는 아무런  
영도 느낄 수 없었다.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알 수 없는  
썩썩함과 전에는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외로움이었다.

눈물을 삼키려고 애쓰면서 터벅터벅 걸어가던 나는  
일순간이라도 나의 처절한 절망감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면서  
집으로 내 생각을 돌렸다. 것처럼 좌절되고 혼란한 순간에  
어떤 단순한 광경이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나의 부모님이  
침대가에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신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딸을 축복해 주십시오. 딸이 실망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따라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광경이 사라지자, 수 백명의 다른 사람들의 얼굴이 서로  
겹쳐서 그 자리로 끼어 들었다—여섯 명의 형제 자매들의  
얼굴과 친척과 친구들, 워드 회원들의 얼굴이 모두 고개를  
숙이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시계를 본 나는 그 때가  
고향에서는 이른 아침이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기도하고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내 마음속의 부정적인  
감정이 사랑과 파스한 감정으로 와해되어 그들은 바로 그때

응답받았다는 것을 나는  
부인할 수 없이 확실히  
알았다. 나는 나의 집과  
하늘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힘있게 불타오르는 삼각  
관계를 알았다.

나는 그제서야 내가 구한  
영에게서만 나오는 간증으로  
나는 나 자신의 사업에서가  
아니라, 나에게 길을 보여  
주시려 그의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 많으신 현명한  
아버지의 사업의 일부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며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고,  
문은 여전히 닫혀 있지만,  
매주 전달되는 편지에 내가  
“우리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확신을 가져다 주고  
있다. 이러한 기도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분에게  
상달되며 매일같이 그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종들에게  
스며 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



**더** 려운 눈 속에서 언  
발을 간신히 끌고  
가던 나는 선교  
사업의 약속된 기쁨을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때 사랑과  
위로로 가득 찬 그림이 내  
마음 속에 펼쳐졌다.



7억 5천만 중에 한사람 :

# 인도의

말일성도

# 청소년

베티 헤일

**만** 일 누구든지 학교에서 말일성도의 수가 적기 때문에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인도의 하이데라바드에 사는 14세의 산토쉬 라미쉬가 어떤 느낌을 가졌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그는 인구가 7억 5천만이나 되는 국가에서 몇 사람 안되는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은 세계 사람 일곱 명가운데 거의 한 사람은 인도에 살고 있다. 이 나라는 중공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인구의 83퍼센트는 힌두교인이며 11퍼센트는 회교도이며 나머지 6퍼센트는 기독교, 시크교, 불교, 자이나 교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산토쉬가 외롭다고 느끼거나 차별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우리 학교 친구들은 내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놀리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



**열** 네 살의 산토쉬와 열여섯 살 된 누나 수티나와 열두 살 된 동생 산계이가 그들 지부의 유일한 청소년이지만 그들은 매우 활발한 역할을 맡고 있다. 말씀을 하는 일이나 성찬을 준비하는 일이나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나 간증을 하는 일이거나 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회원에 속한다. 공부가 일과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어떻게 해서든지 봉사할 시간을 마련한다.

나라는 수많은 언어와 문화와 전통이 있는 나라입니다."

아마 이 말이 산토쉬의 고국을 잘 요약해서 표현한 말이 될 것이다. 인도의 모국어 가운데 많은 사람이 쓰는 언어만 14가지가 있고 그 이외에 소수인이 쓰는 언어는 1,000가지가 넘는다. 산토쉬는 자기 나라의 중요한 14가지 언어 중 두 가지 언어를 말하며 영어도 유창하게 한다.

문화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온 세상의 수많은 십대 청소년은 산토쉬의 세계가 아주 이상하다고 느낄 것이다. 인도 사람들은 테이트를 하지 않는다. 청소년들은 동성끼리만 교제한다. 청소년을 위한 파티나 무도회는 들어본 적이 없으며 남편과 아내는 보통 양가 부모 사이에 합의하여 선택한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하나? "인도에서는 부모를 떠나거나 부모에게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라고 산토쉬는 말한다. 결혼한 후에도 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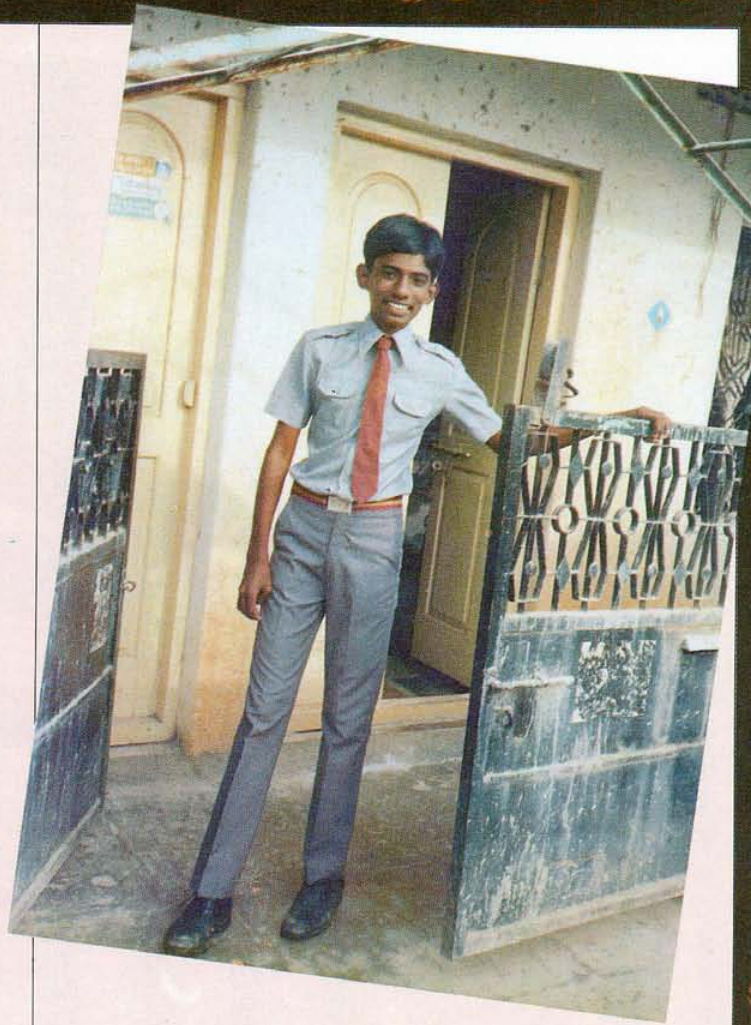
부부가 신랑의 부모와 함께 살 때가 흔히 있다. 그러나 요즘은 와서는 독자적인 생활을 하는 부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산토쉬와 온 세상의 다른 십대 청소년 사이에 공동 유대 관계를 쌓아 주는 것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가 복음이다. 산토쉬는 그의 삼촌인 에드윈 달마 라주 박사를 통하여 복음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 삼촌은 인도 정부로부터 어떤 임무를 받고 사모아에 파견나가 있는 동안 교회에 들어왔다.

라주 박사가 인도에 돌아왔을 때 자기 친척도 복음 메시지를 듣게 하고 싶어서 교회 본부에 편지를 내어 자기 가족에게 선교사를 보내 주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교회는 그에게 선교사를 파견하는 대신 라주 박사와 그의 아내가 직접 자기 친척을 가르치도록 단 기간 동안 선교사로 그들을 불렀다.

가족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산토쉬는 여덟 살이었다. 그의 삼촌인 헨리의 건물 지붕에 있는 급수 탱크를 청소하고 페인트칠을 해서 침례탕으로 썼다. 그 침례식에 참석한 남자와 소년은 모두 인도의 고유 의상인 흰 색의 치렁치렁한 상의와 하의를 입고 있었다. 여자들은 인도 여성의 표준 의상인 흰 색의 사리를 입었다. 이 옷은 긴 천으로써 어깨 위에 걸쳐서 몸 전체를 감싸게 되어 있다. 새로 침례 받은 이 가족이 하이데라바드에서 새로 시작하는 지부를 형성하게 되었다.

산토쉬는 지금 그 지부 소속의 아론 신권 소유자이며 신권은 교사이다. 그와 그의 열두 살 된 동생 산제이와 열여섯 살 된 누나가 수니타가 그 지부의 유일한 청소년이지만 그들은 매우 활발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산토쉬는 교회 모임이 열리는 선교 본부에 매주 성찬을 준비하기 위하여 반 시간 일찍 도착한다. 그는 언제나 어떤 연령 그룹에게든지 말씀을 하거나 공과를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다. 수니타는 지부 합창단장이며 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산제이는 여러 가지 임무를 맡으며 금식주에는 맨 먼저 간증을 전할 때가 흔히 있다.

산토쉬는 또 선교사로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교 사업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한때는 모든 사람을 개종시키고 침례줄 수 있는 아주 외딴 섬에 가는 것에 대하여 꿈꾼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에서는 인도의 젊은이들이 인도에서 봉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나는 이곳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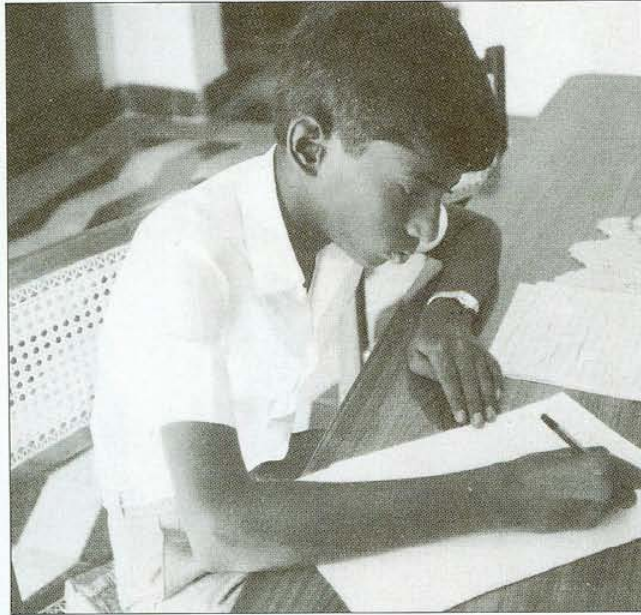
그의 소망 가운데는 의과 대학에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그의 나라에서는 의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매년 약 50,000명의 학생이 지원하여 입학 시험을 치르는데 2,000명만 입학한다. 점수가 가장 좋은 학생들만 의과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산토쉬는 많은 인도 어린이들처럼 세 살 때부터 학교에 다녔다. 그는 17살에 졸업할 것이다. 그 동안 그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그의 하루는 과외 교사와 한 시간 동안 공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집을 떠나는 아침 6시 이전에 시작된다. 그가 다니는 사립 기독교 학교에서는 한 반에 40명 내지 70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과외 교사 및 사오명의 다른 학생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은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와서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시사 문제를 알기 위하여 신문을 읽고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면 여덟 시간 수업을 받는다. 수업에는 수학, 물리학, 생물학 및 세 개 외국어 수업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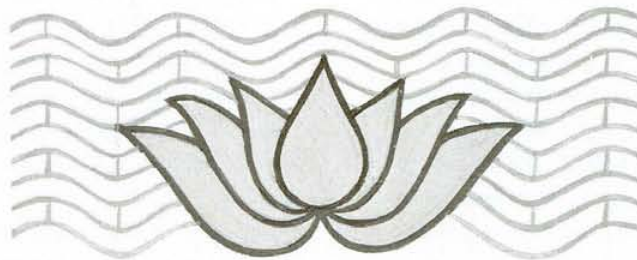
산토쉬는 10학년이며 그 학년에서는 최우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는 우수 학생이 되기 위하여 크리켓이나 배드민턴 등과 같이 굉장히 좋아하는 스포츠를 거의 다 포기해야 했다. 그는 매달 중요한 시험을 치고 대학에서 그의 위치를 결정하게 되는 시험을 삼 개월에 한번씩 치른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숙제를 하고 저녁 8시 저녁 식사 시간까지 잠깐 휴식을 위한 독서를 한다. 저녁 9시에는 다시 한 시간 반 동안 과외 교사와 만나서 공부한다.

학교 생활이 그의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교회와 경전 공부를 위한 시간을 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매우 강한 간증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 나는 물몬경과 성경과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가 모두 짝을 이루는 경전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압니다.”

그런 지식과 가족의 지지가 합쳐져서 그가 종교적으로 소수파의 위치에 있는 것을 충분히 뒷받침해 주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유혹을 이길 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





**옛** 날 팔레스타인에  
튼튼하고 힘차고  
지적인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는 인생의 절정의  
시기에 이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을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한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입에서  
나온 진리와 그가 성역을  
베푸신 시기에 보이신 권세와  
지혜에 경이심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성장하던  
시기는 어땠습니까? 그분은  
다른 유대인 젊은이처럼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육신의  
모든 병을 경험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가져  
본 적이 있는지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태어나셨을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 어린이 소년 어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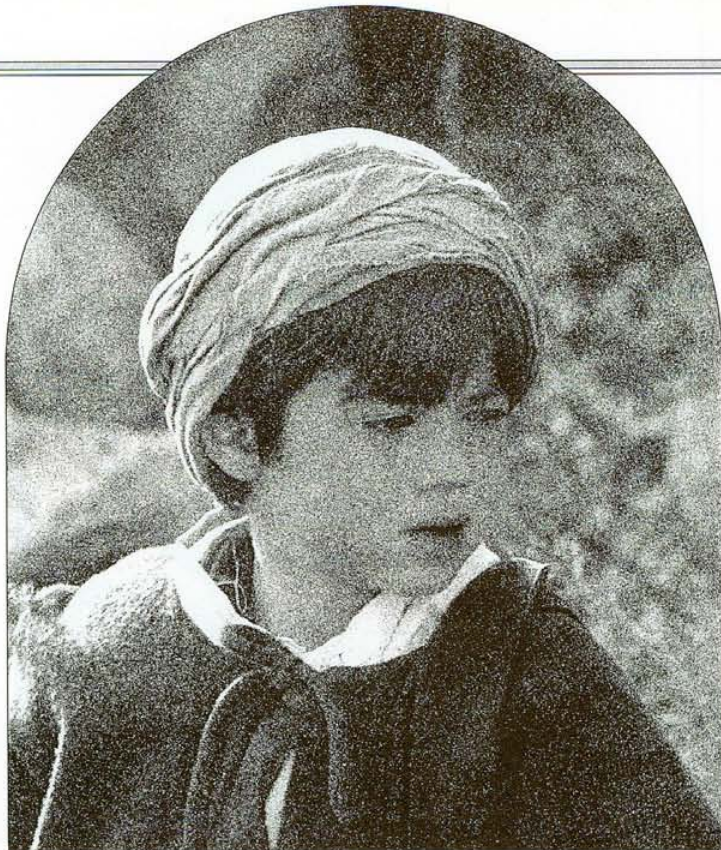
브르스 알 맥콩키(1915~1985)  
십이사도 정원회

-그는 어린 아이로서,  
유대인 소년으로서, 성숙하는  
단계의 어른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는 갈릴리, 유대,  
베레아의 다른 모든 젊은이와  
같았는지? 아니면 일종의  
보호를 받는 거룩한 인생을  
사셨는지?

그의 친구는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서로  
어떤 친분 관계를 지니고  
있었는지?

나는 예수님과 그의 생애에  
관하여 일반적으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경전에서 찾아볼 수는 없지만  
거룩한 기록에서 발견된  
진리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원리를  
팔레스타인의 사회적 및  
문화적인 환경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일에  
관련된 것에 대하여 분명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주의를 돌리기 전에 바울이 쓴 두 말씀은 아주 주의깊게 살펴보기로 합시다.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립보서 2:7~8)

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히브리서 5:7~8)  
자 이제 그 극악 무도한 헤롯 시대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에 가이사인 아구스도는 세금을 부과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헤롯은 그의 유대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이 친척들과 함께 인구 조사를

예수는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태어났다. 그는 우리가 성장한 것과 같이 성장했다. 그는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것과 같이, 기어 다니고, 걷고, 읽고, 쓰고, 일하며, 놀기를 배웠다.

받기 위하여 그들의 고향에 모이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두 사람 다 다윗의 권속으로서 나사렛으로부터 다윗의 성인 베들레헴까지 129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마리아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웠습니다. 친구 및 친척들과 함께 여행하는 그들의 여행 속도는 몹시 느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당나귀에 식량과 침구를 싣고 당시에 모든 여행자들이 사용했던 대상들을 위한 정규적인 숙박지에 캠프를 쳤을 것이다.

이 숙박지는 정사각형 내지 장방형의 야영장으로서 그 안에는 그들의 짐승을 두는 마당과 그 마당 주위에 쌓아올린 단이 있고 그 단에는 중앙을 향하여 문이 있는 방이 죽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 방은 카탈리마(Katalyma : 회랍어)라고 했으며 피로한 여행자는 이 안의 흙바닥 위에 깔개나 침구를 깔고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짐을 나르는 짐승은 뜰에 놔두었습니다. 항상 근처에는 샘이 있어서 물을 공급했으며 그 숙박지가 베들레헴처럼 도시나 마을 가까이에

있을 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돈 몇 푼에 동물의 사료와 사람이 먹을 채소를 몇 가지 갖고 와서 팔곤 했습니다. 음식은 모닥불로 요리했으며 밤새 야영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언제나 환대와 도움과 동지가 넘쳤습니다.

이날 밤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여행한 갈릴리 사람들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카탈리마는 모두 사람이 꽂았습니다. 이 단어는 번역된 말이 없습니다. 구라파에서 볼 수 있는 일종의 호스텔(숙박소)이 이것과 가장 비슷합니다. 신약의 기사에서는 사관에 머물 방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탈리마가 가득 차 있었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뜰 즉 마굿간의 짐승들 뜰에서 자리를 폈습니다. 그곳에서 개가 짓고 소, 당나귀, 양이 우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첫 숨을 내쉬고 육신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리아의 여자 친구와 친척들이 산과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후 팔 일이 되었을 때 베들레헴의 어떤 집이 아니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가 생후 41일 혹은 조금 더 되었을 때 부부가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마리아를 위하여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양을 바치기에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반구 둘을 바치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나중에 아마 이 아기가 약 두 살가량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애굽에 머문 다음 베들레헴으로 또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자라시면서 행하고 말씀하신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베들레헴과 나사렛에 있는 유대인 가정의 생활이 어땠는가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날에도 많은 사람이 그러듯이 비천한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그의 집은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식탁에서 식사하고 거친 요 위에서 함께 자며 아마 그중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잤을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조약하고 간단한 식사였으며 그들의 옷은 집에서 실을 뽑아서 만든 옷이었으며 그 지역의 모든 유대인의 옷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기고 걷고 달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말하고 나무에 기어오르고 놀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당나귀와 낙타를 타고 염소와 소의 젖을 짜고 땅을 갈고 씨앗을 뿌리고 잡초를 뽑고 추수를 했습니다. 그는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유대인 회당에 있는 학교에 가고 쉬마를 외우고 기도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그는 갈리리의 언덕을 산책하셨고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여우의 굴을 보고 공중의 새를 보시며 들의 백합화를 보시고 양 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그에게 판자를 튼질하고 못을 박고 목재를 운반하고 집짓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열두 살 되었을 때 가족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갔으며 성전에서 제사장 및 랍비들과 강론하셨습니다. 이 무렵에 그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라는 것과 자신의 생애가 지상의 다른 어떤 사람의 생애와도 다를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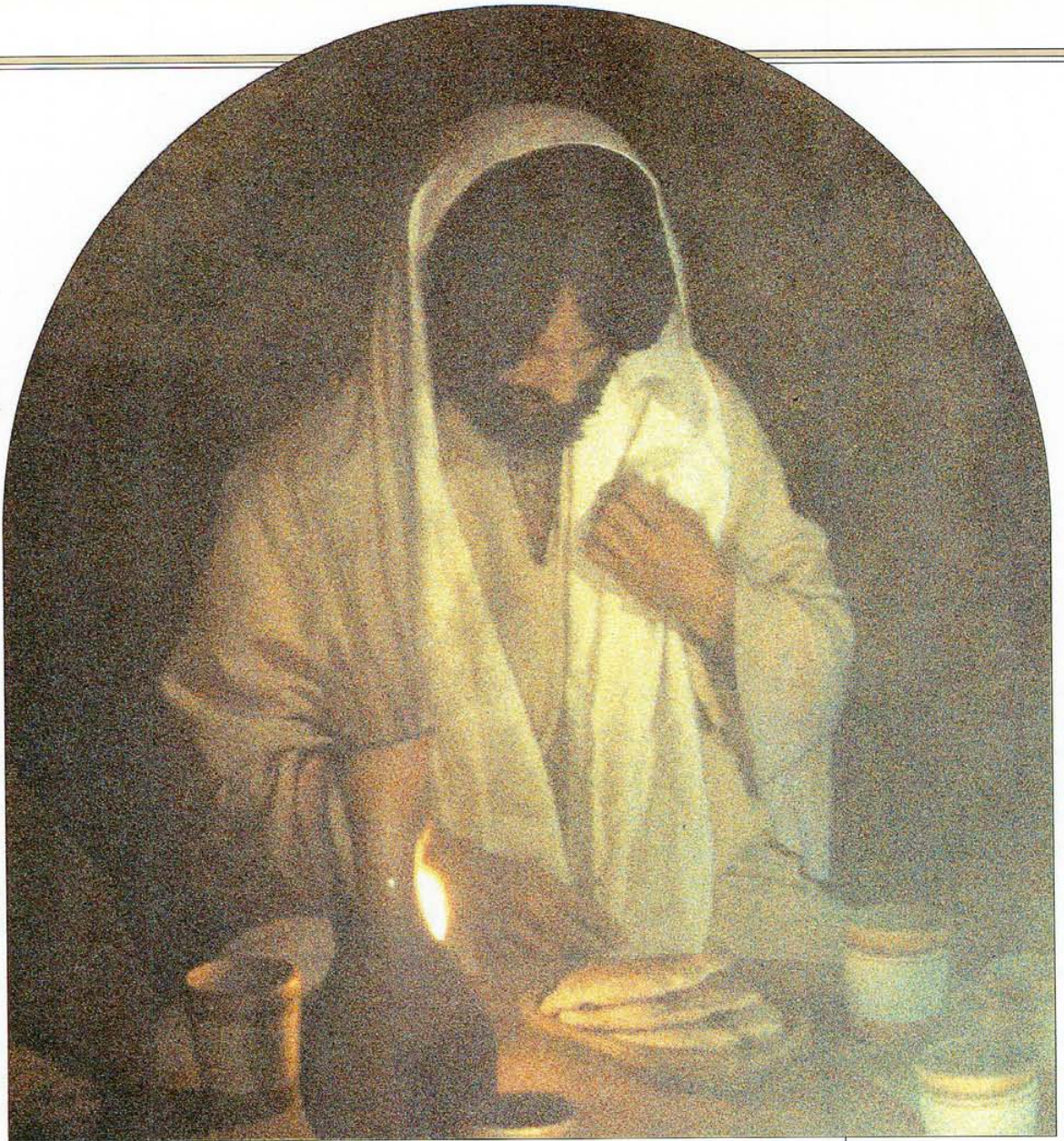
경전에서는 그가 거룩한 진리를 배우시는 것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면서 그의 성장 시기에 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눅 2:52)

그가 성역을 베푸시는 기간에도 그의 형제들과 자매들은 여전히 그를 다른 사람과 같게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피로하셨습니다. 그분은 무화과와 물고기와 보리떡을 잡수셨습니다. 그분은 연회에 가시고 친구의 집에서 또 하늘의 별을 보며 노천에서 주무셨습니다. 겨울의 눈보라 속에서 추위 하셨으며 여름의 태양이 들의 풀을 태울 때 더위 하셨습니다.

로마인의 체찍에 있는 날카로운 뼈 조각과 납추가 그의 육신을 찢을 때 그분은 고통에 떨고 피로와 하셨습니다. 가시관은 그의 얼굴에 피가 강물처럼 흘러내리게 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다는 못이 그의 육신을 찢을 때 다른 어떤 육신의 인간과 마찬가지로 그의 손과 발에 고통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범이며 친구이며 우리와 같이 고통을 겪으시는 분이요 우리와 같이 수고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는 것같이 태어나셨으며 우리가 자라는 것같이 자라나셨으며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똑같은 질병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피로하고 배고프고 목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이기고



당신의 구원을 얻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선교 사업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 속에는 진리와  
의의 대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르라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구세주는 우리의 본보기이며 친구가  
되신다. 우리가 그가 생활하는 대로  
생활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그가  
현재 계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그의  
집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될 것이다.

능히 도우시니라”(히브리서  
2:18)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내게 배우라”(마태복음  
11:28~29) 만일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배우고 그가  
사신 대로 산다면 그가 계신  
곳으로 가서 영원히 그의  
집에서 살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

# 창의성과

## 말일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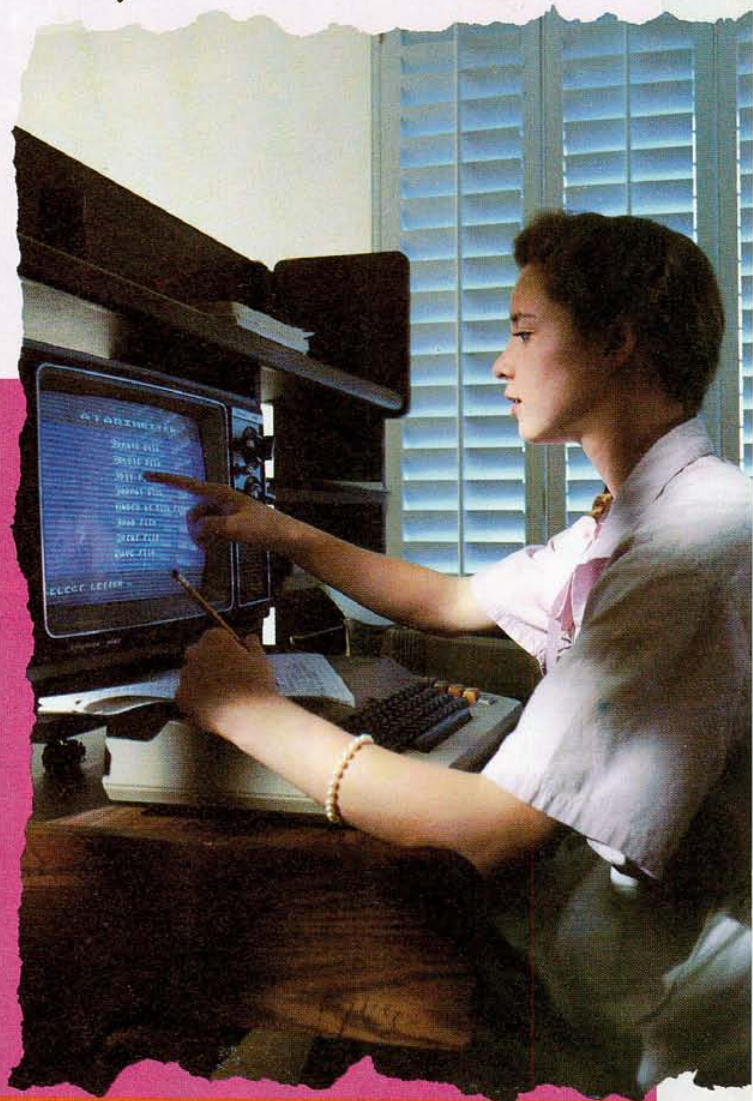
크로포드 게이츠

우리 말일성도가 누리고 있는 훌륭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성신입니다. 요셉 스미스는 이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의 독특한 특징의 하나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줍니까? 이 은사는 어떻게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만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보다 더 창의적이 되게 해줌으로써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의성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 주부의 경우에는 더 나은 아내와 어머니가 되는 데 창의성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형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더 나은 신권 소유자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학생의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를 더 잘하게 할 수 있습니까? 집을 짓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기타 수만 가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에게 창의성은 어떻게 그들이 하고 있는 활동을 개선하고 그런 것이 더 의미있고 더 아름답게 되게 해줄 수 있습니까?

내가 창의성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내 생활을 풍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몇 가지 경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자신의 생활을 검토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좀더 온전히 또 창의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지 발견하도록 권고하고 싶습니다.

### 너무나 값진 성령의 은사

맨 처음 이야기는 교회 역사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은 물론경을 번역하던 기간에 올리버 카우드리가 자기도 번역하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에게 이것을 용납할 수 있는지 여쭙었으며 주님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원작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작곡가는 제한된

음표만으로 작업을 하며 여러분이 지난 천 여년 동안 쓰여진, 모든 악보를 살펴본다면, 거의 모든 가능한 음표의 조합이 사용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창작에 독창성을 더해 주는 것은 개인적인 특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올리버가 계속해서 애원했으므로 주님께서 마침내 그에게 번역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어떤 방법으로 번역을 시도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그의 노력의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교리와 성약 9편에 기록된 대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언자 요셉을 통하여 왜 올리버가 번역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 구하기만 하면...(주님은 이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그러나...너는 내 마음속으로 깊이 연구하여야 하리니, 그러한 연후에 옳은 일인지 아닌지 내게 간구하여야 하느니라. 만일 옳은 일이면 나는 네 가슴을 뜨겁게 하리니, 그로 인하여 그것이 옳은 일인 줄 느끼리라.

“그러나 옳지 아니한 일이면 그 같은 느낌이 없고”(교성 9:7~9)

이 메시지는 우리가 자신의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식 즉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감에 의하여 그런 노력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영감은 우리의 창의적인 노력을 보충해 줍니다. 이 영감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예언자들 뿐 아니라 너무나 귀한 은사를 받은 모든 말일성도에게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옵니다.



## “유명한” 작곡자가 됨

두번째 이야기는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덟 살에 침례받은 직후에 피아노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피아노 레슨을 시작한 지 꼭 1년이 지났을 때 경제 대공황의 여파가 우리 집에도 본격적으로 닥쳐 와서 우리는 더 이상 피아노 레슨을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나는 피아노 책에 있는 곡을 연습했을 뿐 아니라 나 스스로 소품을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음 작곡한 곡을 쓰는데 일 개월 내지 이 개월이 걸렸습니다. 나는 이 일로 신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실제로 내가 작곡한 곡을 공들여 악보에 옮겨 적기까지 했습니다. 나는 내가 창작한 작품을 “작품 1, 제 1번”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그 곡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셔서 “학교에서 선생님을 위하여 그 곡을 한번 연주해 드리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반 선생님은 음악에 대하여 별로 아시는 바가 없었으므로 “학급 전체를 위하여 한번 연주해 보렴.”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갑자기 나는 삼 학년에서 피아노 작곡가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런 인식의 결과 나는 또 다른 곡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작곡해서 두번째 곡을 적었습니다. 사 년 후에는 내가 쓴 곡이 약 열 곡이 되었으며 모두 피아노 곡이었습니다.

## 놀라운 발견

그리고 나서 열두 살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옛날의 피아노 레슨 책을 다시 보다가 나의 “작품 1, 제 1번”이 사실은 전혀 내가 작곡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곡은 그 책의 25페이지에 있었습니다. 나는 무의식 중에 이 곡을 흡수해서 그것이 내가 작곡한 작품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곡가로서 나의 경력은 사기극으로 끝나 버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쓴 곡 중에는 특별한 점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그 곡의 조를 다른 조로 옮겨 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아홉 개의 곡은 어디에서 나오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약 한 시간 동안 내가 쓴 음악 책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제 2번”에는 “예수님은 햇님반에 내가 참석하기를 원하신다”가 조금 들어 있었으며 “제 3번”에는 또 다른 곡이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아홉 곡 중에서 “제 1번”처럼 전적으로 다른 곡이 그대로 다 들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연습하여 기량을 닦는 동안에 점점 더 독창적이 되고 더 창의적이 될 것입니다.

## 창조의 천재성

표현의 독창성이 창의성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다는 것 즉 주님은 어떤 나뭇잎도 두 개가 똑같은 또 어떤 것도 두 개가 똑같은 만드시지 않은 사실도 창조의 천재성을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관성 쌍둥이까지도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우리는 독특합니다. 이 생의 과업 중에 하나는 우리 내부의 독특한 점을 찾고 그것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지역 사회에 대한, 우리 가족에 대한, 또 모든 사람에게 대한 우리의 공헌은 어떤 면에서 독특하고 독창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 “뒤떨어지지 말아라”

이제 세번째 이야기로써 사 년을 넘어 가겠습니다. 열여섯 살이 되었을 때 어떤 진로를 택할지 결정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친구 두 사람은 부친이 대학 교수였으며 그중 한 분은 물리 학자였습니다. 나는 어쩌면 물리 학자나 세균 학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음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나 음악가로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극히 적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악가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조사하고 살펴본 다음 마음 속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가운데 어쨌든 나는 음악가로서 세상에 공헌하게 되어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고 나자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업가인 아버지께서는 음악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음악가로 나가고 싶다고 말씀드리자 아버지는 “좋아, 그러나 이류가 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그 이후로 여러 번 내 귓속에 메아리쳤으며 내가 창조적인 일에 있어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도록 격려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나는 훌륭한 음악과가 있는 우리 집 가까운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나는 일 학년 때 음악 작곡 경연 대회에 나가 일등 상을 받았습니다. 그 상에는 내가 작곡한 곡을 스톡톤 캘리포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내가 작곡한 곡은 스톡톤 캘리포니아 심포니 오케스트라보다는 좀더 큰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으므로 100명 이상의 단원으로 된 커다란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있는 대학으로 전학했습니다. 나는 그곳에 도착한 첫날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사무실로 가서 그 대학의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나의 곡을 연주해 줄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놔 두고 가시오. 지금 당장은 바쁘니까 다음 주에 오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은 것 같소. 우리는 월요일 밤에 연습합니다. 다음 월요일에 우리 오케스트라가 그 곡을 연주하도록 해주겠소.”

그리고 나서 그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지휘해 보고 싶소?” 만일 이때 그가 “직접 지휘할 수 있소?”라고 물었다면 다르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지휘해 보고 싶소?”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0명으로 된 오케스트라가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는 것을 직접 지휘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나는 집으로 가서 그 다음 주 내내 정말로 오케스트라에서 좋은 음악 소리가 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케스트라 곡의 모든 부분을 점검했습니다. 나는 내가 만든 곡이 어떤 소리를 낼지 상상은 해보았으나 실제로 연주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는 하루 종일 수업 시간 내내 안절부절했습니다. 점심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당의 앞 줄에 앉아서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습하는 동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 지휘자가 나에게 몸을 돌리고는 “악보 가지고 왔오? 이리 주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나를 오케스트라에게 소개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 일로 만족을 느끼는 순간에, 여러분은 바로 이런 기쁨을 주님께서도 자신이 창조한 것을 내려다보시고 좋다고 말씀하시며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지휘봉을 넘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별별 떨면서 그 지휘봉을 흔들었으며 음악 소리가 거칠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주자들은 손으로 쓴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내가 쓴 악보는 엉망이었습니다. 그 오케스트라는 웅웅거리는 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몇 분 동안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참고 해낼 수 있담?”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같이 보이는 대신에 모든 오케스트라 단원이 “괜찮은데, 괜찮은데.”라고 말하는 것같이 보였습니다.

마지막 몇 분 동안 나는 지휘단으로부터 공중으로 일이 미터 가량 높이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바로 이 때문에 살고 있다! 이것이 세상에 대한 나의 공헌이다!”라고 느끼면서 거의 본능적으로 지휘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라는 말은 단지 물론경(니이 2:25)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끝나고 나자 그들은 박수치기 시작했으며 지휘자는 낭하로 달려 오면서 “첫 부분은 엉망이었지만 마지막 부분은 상당히 괜찮았소!”라고 말했습니다.

##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가지 이유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나는 그 마지막 부분의 훌륭하고 큰소리가 계속해서 귀에 들렸으며 첫 부분의 그 끔찍했던 것은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좋았더라”(창 1:4 참조)고 말씀하실 때 틀림없이 이렇게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하신 일에 관하여 얼마나 즐겨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가지 이유는 기쁨을 누리기 위함이라면 그분이 어떤 일에 기쁨을 느끼실까요? 창조적인 활동 즉 우주나 인간의 영혼을 창조하는 활동에서 기쁨을 누리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창의성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자아로부터 즉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해주는 우리의 일부분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놀이에서 보다 더 창의적이 될 때 우리의 생활은 좀더 즐거운 것이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자신의 내부에서 진실로 유일하고 독특한 것을 찾도록 도와 줄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창의적으로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 독특한 점을 활용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의 독특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될 것입니다.□

브리감 영 대학교 교육 주간에 행한 연설에서 발췌

